사단법인 전국신문협회 The Association of National Newspaper

대전투데이

젊은생각 · 바른신문 전화 042-538-3030 구독배달 042-538-1602 www.daejeontoday.com 제 2568호 2017년 4월 25일 화요일

안정된 노후설계
농지연금
상담문의 1577-7770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충남도 새정부 출범 맞춰 '지역 아젠더' 제시

허승욱 도 정무부지사, 과제별 입법 · 국정과제 반영 등 향후 추진계획 설명

충남도가 민선 5, 6기 정책현장의 문제의식과 개선 노력을 토대로 마련한 '충남의 제안' 18개 과제를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국가정책화 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한다.

허승욱 도 정무부지사는 24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충남의 제안 추진상황 관련 브리핑을 열고, 과제별 입법 및 국정과제 반영 등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도는 지난해 9월부터 총 3차례에 걸쳐 '충남의 제안 Ⅰ, Ⅱ, Ⅲ'라는 이름으로 환경 · 복지 · 농업 · 정부혁신 · 중소기업 분야 총 18개 과제를 제안했다. 이후 제안내용을 국가정책화하기 위해 제20대 국회와 중앙부처, 학계 등과 함께 논의하는 동시에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도 힘써왔다.

현재 충남의 제안 중 15개 과제는 주요 정당 대선공약에 반영된 상태로, 도는 새로이 출범하는 정부의 세부 국정과제에까지 반영해 추진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6개 과제 입법절차 진행…제20대 국회서 처리 추진

전체 18개 과제 가운데 12개 과제는 입법이 필요한 과제로, 이 중에서도 4개 과제는 국회의원 입법발의 후 현재 국회 각 상임위에 계류 중인 상태다.

또 연안하구 생태복원 과 찾아가는 공공요금 할인 과제는 2개 과제는 입법안을 마련, 금년 내 발의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물위기 대응체계 구축 과제는 지난해 11월 '물관리 기본법 제정(안)'이 입법발의 돼, 현재 국토위에 계류 중이다.

대기환경 개선 과제는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제정(안)'이 발의되어, 환노위에 계류중인 상태다.

당진 · 평택항 경계조정 갈등에서 촉발된 자치단체 관할구역 조정 과제는 현재 이명수 의원에 의해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발의, 국회 안행위에 계류 중이다.

전력수급체계 개선 과제는 지난 3월 전력수급정책에 환경성 · 국민안전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선언적 의미로 '전기사업법'이 개정된 상황으로, 향후 전원개발촉진법 및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전기요금제 개편을 위한 실행력을 담보해 나아간다는 계획이다.

연안 · 하구 생태복원 과제는 지난해 12월 서산 고파도와 서천 유부도 폐염전 생태복원 시범사업이 국가계획에 반영돼 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로, 올 상반기 내 특별법 발의를 마친다는 복안이다.

신청 없이도 먼저 찾아가는 공공요금 할인 과제는 양승조 의원과 협의를 통해 오는 7월 입법안 발의를 추진 중으로, 연내 개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다.

◆ 농업재정 개편 등 6개 과제 공론화 · 법안마련 연구 추진

이를 제외한 농업재정 개편, 특별행정기관 지방이양 등 나머지 6개 입법과제는 심도 있는 논의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할 과제로, 현재 공론화 및 법안마련 연구가 한창이다.

이 가운데 농업재정 개편 과제는 국회 연구모임인 '농업과 행복한 미래'와 함께 농업 · 농촌의 다원적 기능 보전과 지원에 초점을 맞춘 직불금 확대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중이다.

특별행정기관 지방이양 과제는 특행기관 설치 근거를 현행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변경해 남설을 막고, 지방이양 기능과 시기, 수반인력 · 예산 등을 포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도 운영개선 6개 과제…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 추진

나머지 6개 과제는 기존 제도운영을 개선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는 과제로, 새 정부가 정책의지를 가지고 시행할 수 있도록, 현재 중앙부처와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고 있다.

이는 4대강 보 상시 개방, 재정정보 실시간 공개,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가정 양육수당 인상, 지역벤처투자 지원 확대, 농산물 산지유통체계 확립 등으로, 중앙부처로부터 공감을 얻고 있으며, 주요 정당의 대선공약에도 반영된 상황이다.

허승욱 도 정무부지사는 "충남의 제안은 지난 6년간 도정 현장에서의 고민과 경험을 바탕으로 마련한 것으로, 하나하나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들"이라며 "앞으로 이 충남의 제안이 입법화 및 국정과제화 될 수 있도록 과제별 추진전략을 세워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한 기자

대선후보 선플실천서명 캠페인 전개

인터넷 언어모니터 활동 강화계획

"상대후보 비방대신, 정책 · 비젼으로 경쟁 계기"

사이버 악플추방운동 10주년을 맞은 (재)선플재단 선플운동본부(이사장 민병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원으로 공명선거를 위한 '19대 대통령후보 선플실천서명 캠페인'을 전개하고, 전국 선플SNS기자단들의 인터넷 언어모니터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선후보들이 서명하는 '선플실천선언문'에는 19대 대통령 후보로서 정책과 공약으로 경쟁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조성에 앞장서기 위해 "첫째, 상대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흑색선전을 하지 않고, 둘째,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로 정정당당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며, 셋째, 당선된 뒤에도 철저한 공약이행으로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선플재단은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기호순)가 근거없는 비방으로 상대를 헐뜯지 않고 국민들을 위한 정책선거에 임할 것을 다짐하는 '선플실천선언문'에 서명을 마쳤으며, 19대 대선 후보 모두가 선플서명에 동참하도록 할 예정이다.

그동안 선플재단은 18대 국회부터 국회의원들에게 아름다운 언어사용을 약속하는 선플서명을 받기 시작하여, 현재 20대 국회의원 300명 중 93.6%인 281명이 선플서명을 마쳤고, 2013년부터 전국선플SNS기자단이 의정활동시 아름다운 언어 사용을 실천하는 국회의원들을 선정하여 청소년들이 직접 시상하는 '아름다운 말 선플상 시상식'을 개최해왔다.

선플재단 이사장 민병철 경희대학교 특임교수는 "선플상을 수상한 의원들은 막말대신 배려가 있는 아름다운 언어로 정치를 하겠다는 약속을 한다. 이번 선플실천선언문에 서명한 제19대 대통령 후보들도 상대후보에 대한 비방대신, 정책과 비젼으로 경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국 30여개 지역의 선플누리단 교사와 학생들은 5월 9일,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가 별도의 신고 없이 5월 4일(목) ~ 5월 5일까지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사전투표' 제도를 알리는 홍보캠페인을 전개한다. 사전투표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 제시 후 참여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소의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다.

이정복 기자

교육정보시스템재해복구센터 조치원 유치 확정

세종시 · 교육부 · 세종시교육청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협약

교육부 산하 교육정보시스템 재해복구센터(이하 재해복구센터)가 세종시 조치원읍 서북부 도시개발지구에 입주한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4일 오후 4시 교육부 회의실에서 재해복구센터의 성공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이춘희 세종시장, 교육부 이영 차관, 류재승 세종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 한석수 학술정보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재해복구센터는 조치원 서북부 도시개발지구 내 공공청사용지 5,000㎡에 건립될 예정이며, 2018년까지 건립을 완료하고 2019년에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 2020년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업무협약에서 각 기관들은 재해복구센터를 성공적으로 건립하기 위하여 재정투자, 토지공급, 각종 인 · 허가, 기반시설 조성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재해복구센터는 교육부에서 사업을 주관하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건축 및 운영 · 관리할 예정이다.

이 시설은 재난 · 재해로 교육정보시스템이 파손돼 서비스가 중단되는 상황에 대비, 학생생활기록부 등 주요 정보자원을 안전하게 보관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하게 된다.

재해복구센터 건립에 따라 상시근무인력 55명, 연간 유동인구 8,600명이 발생하는 등 원도심(조치원읍)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은 교육부 재해복구센터 유치를 위해 현장설명, 실무회의 등 긴밀한 협력과 물밑 접촉을 통해 조치원 서북부지구에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세종시는 조치원읍을 인구 10만 명의 젊은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청춘조치원 사업'의 일환으로 서북부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 6월 부지조성공사를 착공, 2018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현재 전체 가처분면적의 약 50%에 대해 매각을 확정하였다.

세종=김정환 기자

道 '낙후 어촌 활성화' 6곳 147억 원 확보

충남도는 해양수산부에서 공모한 '2018년 어촌 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에 태안 채석포 권역을 비롯한 도내 6곳이 선정, 147억 원(국비 100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24일 밝혔다.

어촌 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은 낙후되고 생활환경이 불편하며, 고령화 등 인구 감소에 따라 마을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어촌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선정에 따라 도내 어항 배후지 등을 중심으로 통합 거점 개발, 지역 단위 생활 경제권 확대 및 지역 특성에 맞는 마을 단위 특화 개발을 통해 어촌 인프라가 확충되고, 정주여건이 개선돼 어가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선정된 사업 및 투입 예산을 보면, 태안군 근흥면 채석포 권역 단위 거점 개발 사업 1곳에는 103억 원(국비 70억원)이 투입된다.

또 특화 개발 사업 대상에 선정된 보령시 은포3리와 태안군 안면읍 신야리 해녀마을에는 38억 5000만 원(국비 26억 4000만 원)이 투자된다.

각 선정 지역에는 내년부터 5년 동안 수산 식품 로컬푸드 판매장과 어촌 홍보관 건립, 안전거리 및 바다정원 조성 등 주민 소득 증대 사업과 지역 경관 개선, 생활 기반 정비 사업 등이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김정한 기자

행정수도 염원 전국으로 '확산'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실현 위한 행정수도 완성 염원

오는 5월 9일 대선을 앞두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 염원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상임대표 : 맹일관, 최정수, 이하 '대책위')는 사)한국체육진흥회 세종지부와 공동 주관으로 4월 22일(토)~ 23일(일) 순천 에코 국제걷기대회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서명운동 및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순천 에코국제걷기대회에는 일본, 대만, 중국, 러시아 등 해외 참여자와 국내 걷기대회 동호자 및 전국에서 순천을 찾은 관광객이 참석했다.

홍보활동을 진행한 최정수 대책위 상임대표는 "행정수도 완성은 세종시와 충청권에 한정된 지역 공약이 아니라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핵심 사업이다"라며 "지난 3월 서귀포 유채꽃 행사에 이어 마침 순천에서 외국인까지 참여하는 국제걷기대회 행사가 열려 미완의 도시인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완성되기를 바라는 염원에서 홍보활동을 펼쳤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지난 4월 15일(토)~16일(일) 개최된 세종조치원 복숭아 봄꽃축제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에 돌입했고, 세종시이통장연합회에 협조를 요청해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세종신도시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에서도 아파트 단지별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대책위는 오는 27일 개최되는 읍면동장 회의에서 16개 읍면동 민원센터에 서명지 비치를 협조 요청하여 대시민 서명운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5월 초부터는 신도시 아파트 일부 단지에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동영상 광고를 송출할 예정이다.

이정복기자

대전광역시의회 김경훈 의장 '전문건설업 육성·발전 유공' 감사패 수상 대전광역시의회 김경훈 의장은 24일 대한전문건설협회로부터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조례제정과 지역업체 하도급을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등 전문건설업 육성·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아산시의회, 의회홍보체험관 운영

지역별 현황, 의회 기구현황, 의회사무국 기구 등 대한 홍보

아산시의회(의장 오안영)는 제56회 아산 성웅이순신 축제 기간(4.28~30)중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의회홍보체험관을 운영한다.

의회홍보체험관은 축제 기간 중 처음 운영을 시도하는 것으로 의원 지역별 현황, 의회 기구현황, 의회사무국 기구 등에 대한 홍보를 위해 부스내 현수막을 설치하고 의원배지 스티커 제작, 의사발언 및 의사봉3타 시연을 위한 포토존을 설치한다.

운영은 상임위원회 의원들이 일자별로 참여해 홍보부스를 찾는 체험자에게 스티커를 붙여주고, 의회에 역할 등에 대한 설명함으로써 의회와 축제를 같이 즐길 수 있는 체험행사가 될 것이다.

오안영 의장은 "축제를 찾는 학생, 학부모 등의 시민들이 의회가 하는 일에 대해 직접 체험과 느끼게 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축제기간에 의회 홍보체험관을 운영하게 되었다. 많은 시민들이 의회에 관심을 갖고 체험해 보시길 바란다."고 했다.

아산=리량주기자

대전시 선관위, 5월 9일까지 퀴즈 이벤트 실시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과 투표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선거일 맞추기 퀴즈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은 4월 26일(수)부터 5월9일(화)까지 2주간 진행하며 이벤트 참여자 중 300명을 추첨하여 커피 기프티콘(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할 예정이다.

참여방법은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dj.nec.go.kr)에 접속하여 '알림' - '이벤트게시판' 에 응모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dj.nec.go.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후보자 현황, 선거공보 및 후보자 10대공약, 후보자 정보, 후보자토론회, 선거여론조사, (사전)투표소 찾기, 선거일정 등 제19대 대통령선거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대전시선관위 관계자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맞아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는 선거일을 맞추면 커피 키프티콘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행운을 드린다며 퀴즈 이벤트에 많은 응모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정환기자

"도정 현안과 과제 대선 공약화 역량 결집 앞장"

윤석우 충남도의회 의장, 도정 현안 사업 공약화 추진 위한 행보 본격화

윤석우<사진> 충남도의회 의장이 오는 5월 제19대 대선을 앞두고 도정 현안 사업 공약화 추진을 위한 행보를 본격화한다.

윤석우 충남도의회 의장은 24일 "충남도가 제시한 지역 현안과 과제 등이 대선 공약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역량을 결집, 국가 정책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윤 의장에 따르면 도는 오는 5월 9일 실시되는 제19대 대선을 앞두고, 도내 주요 현안과 대한민국 발전 관련 총 33개 과제에 대해 대선 공약화하기로 했다.

지역 발전 주요 과제로는 ▲KTX공주역 활성화 사업 조기 추진 ▲내포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 ▲논산·계룡 국방산업단지 조성 ▲수소에너지 시대 구현을 위한 기반 마련 ▲당진·평택항 진입도로(신평~내항) 조기 건설 등 12개를 제시했다.

윤 의장은 KTX공주역 활성화와 관련,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사업으로 역 활성화 사업을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간선도로망 구축과 물류유통단지 건설, 문화·관광을 테마로 한 역세권 개발 등이 시급한 것으로 윤 의장은 내다봤다.

윤 의장은 향후 대선 주자 등 정치권을 비롯한 정부와 접촉을 통해 공주역 활성화를 위한 제안사업을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윤 의장은 "세종시~공주~공주역, 공주역~계룡시를 연결하는 순환간선도로망 보완이 필요하다"며 "백제역사유적지구의 관문으로 공주역 육성이 필요한 만큼 정치권에 이 같은 문제를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의 과제 선정은 지방정부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어려웠던 사안을 국가 정책화를 통해 해소하기 위한 사안"이라며 "이러한 문제를 도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정복기자

국민의당 원자력연구원 사태, 시민안전 대책마련 당력 집중

국민의 당 대전선대위 "원자력연구원의 부정행위" 관련 긴급 대책회의

국민의 당 대전선대위는 21일 오전 "원자력연구원의 부정행위"와 관련한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당 차원에서 총력 대응키로 했다.

이날 회의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해 11월7일부터 올해 4월19일까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핵연료재료연구동, 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 금속용융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모두 3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국민의 당 대전선대위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 위법사항에 대한 철저한 시민검증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러한 내용을 중앙당에도 긴급하게 보고해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안 후보도 작금의 사태에 대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후보는 물론 당도 책임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영호기자

대전지역 공공주택관리전문가·종사자 "문재인 후보 지지"

대전지역 공공주택 관리 분야 종사자들이 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지역 주택관리사 및 관리종사자들은 24일 오후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다 나은 공동주택 관리문화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지선언문에서 "문재인 후보는 그동안 장기수선 관련 제도 개선과 소규모주택 등 관리 사각지대 주택관리를 위한 공적 관리제도 도입, 관련분야 종사자들의 전문성 강화와 근로환경 개선 등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대선공약에 공동주택 관련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는 문재인 후보를 적극 지지하며, 올바른 공동주택 관리문화 조성을 위해 문재인 후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정복기자

선거벽보, 후보자 현수막 등 훼손 행위 엄중 단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선거벽보나 후보자 현수막 등 선전시설물이 훼손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시·도 및 구·시·군선관위에 순회·감시활동을 강화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경찰청에도 순찰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3,000여 명의 공정선거지원단 등 모든 인력을 동원하여 순회·감시활동을 강화하고, 훼손 등 사례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조사·조치할 예정이다.

지난 4월 19일에는 경남 함안군선관위가 도로변에 게시된 후보자의 선거운동 현수막을 무단으로 철거한 사람을 고발하기도 하였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줄 것을 부탁했다.

김정환기자

정용기 의원, 국민안전처 특별교부세 총 4억 확보

대전 대덕구 평생학습센터 내진보강 사업과 안산평생학습도서관 내진보강 사업으로 구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평생학습센터와 도서관을 이용하게 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용기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대전 대덕구)은 4월 24일, '대덕구 평생학습센터 내진보강 사업' 및 '안산평생학습 도서관 내진보강 사업' 예산으로 국민안전처 특별교부세 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대덕구 '평생학습센터'를 찾는 인원은 하루 100명, 연 3만2천 명이 이용하는 곳이다. '안산평생학습도서관'은 본관 1993년 11월, 별관 2003년 12월에 준공되었고 이용하는 구민만 하루 1,100명, 연 32만 명이 이용하고 있다. 건축법상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아 지진재해 발생 시 많은 피해가 우려되는 건물로 보강이 절실히 필요했던 곳이다.

이정복기자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신탄진 지역 교육환경개선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신탄진 지역 교육환경 개선 위한 실제적 방안 모색하고자

대전광역시의회 박병철 교육위원장(대덕구3, 더불어민주당)은 신탄진 지역 초·중·고등학교 학교장 및 학부모 대표들과의 대화를 통해 신탄진 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실제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24일 신탄진초등학교에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새일초, 신탄진초, 대전석봉초, 대전목상초, 대전용정초, 회덕초, 장동초, 와동초, 대전새여울초, 대전대청중, 신탄진중, 회덕중, 신탄진고, 대전이문고 등 15교의 학교장, 학교운영위원장 및 학부모회장 44명이 참석하여 등하교 안전을 위한 통학로 확보, 노후시설 개선, 체육관 신축 등 학교별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현안과제 및 건의사항 등을 자유롭게 얘기하며 대전시교육청 및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의 지원을 요구했다.

박병철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나온 학교장 및 학부모들의 다양한 교육환경 개선 요구들을 대전시교육청 및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정환기자

단통법 일몰후 '휴대폰 제조사 편법방지법' 발의

신용현 의원, 소비자 지원금 축소하고 출고가 올리는 편법 미연에 방지 하고자

이른바 '단통법'상 지원금 상한제와 함께 일몰되는 '휴대폰 제조사의 자료제출 의무' 폐지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방지 방안이 국회에서 입법으로 추진된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오는 9월 일몰 예정인 단통법상 휴대폰 제조사가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과 자급제 단말기의 출고가를 앞으로도 계속 정부에 제출토록 하는 '휴대폰 제조사 편법방지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20일 대표발의 했다.

현재 단통법 제12조 제2항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직접 지급한 장려금 규모와 이용자가 이동통신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구입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출고가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 규정은 단통법 입법당시 삼성의 로비로 3년 이후에 일몰로 폐지되도록 법안이 통과되었고, 오는 9월 자동 폐지될 예정이다.

문제는 제조사의 자료제출의무가 폐지될 경우, 제조사가 휴대폰 소비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지원금은 축소시키는 반면, 휴대폰 대리점에 주는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은 올리는 방식의 편법을 통해 시장이 혼탁해질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우려가 현실화될 경우 ▲휴대폰 공시지원금 축소,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률 축소, ▲휴대폰 출고가 인상 효과 등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정부의 단통법 위반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역시 어려워지게 된다.

이에 신 의원이 발의한 단통법 개정안은 일몰이 예정된 현행 제조사의 자료제출 의무를 계속 유지시켜, 제조사가 유통점에 판매장려금을 올리고 소비자 지원금을 축소하고 출고가를 올리는 편법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휴대폰 제조사의 자료제출의무가 폐지될 경우, 소비자 지원금 및 20%요금할인률 축소, 출고가 인상 등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단통법 개정을 통해 국민 가계통신비 인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복기자

국토부-세종시 '부동산 거래 시장질서 확립 업무협약' 체결

공정 · 투명한 부동산 문화 이끈다

전국에서 부동산 시장 열기가 가장 뜨거운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부동산 전자계약을 기반으로 하는 부동산거래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모범 중개업소를 선발해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불법전매, 다운계약 등 위법행위를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문화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24일 세종특별자치시와 '부동산거래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부동산거래 대부분이 전자계약으로 이뤄지는 건전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와 강력한 행정처분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세종시(시장 이춘희)는 최근 1년간 부동산 거래사고가 없는 우수 전자계약 모범업소를 선발해 '우리 중개사무소에서는 부동산 전자계약이 가능합니다'라는 인증패를 제공하고 연말에는 '실적이 우수한 모범 중개업소'를 선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세종특별시장의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또한 전자로 부동산 계약이 이뤄지면 그동안 부실했던 확인 · 설명이 사라져 소비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거래신고 · 주택임대차 확정일자가 자동 처리된다. 무엇보다 중개사무소에 계약서류를 보관할 필요가 없어져 시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중개사무소를 지도 점검할 필요가 없어 중개사무소는 단속유예를 받는 부수적 효과도 얻는다.

그리고 주택 · 상가 · 토지 · 오피스텔 등 부동산 담보대출(주택은 전세자금 포함)을 받으려는 시민들이 대출금리 0.2~0.3%p 추가 인하 등과 같은 전자계약의 이점 등을 알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를 추진하는 동시에 전자계약 중개업소를 찾는 소비자를 위해 안내창구인 전자계약 지원센터를 운영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반면에 특별한 사유 없이 부동산 전자계약을 거부하면서 불법전매 알선, 다운계약, 부실한 확인 · 설명 등 위법행위를 조장하는 등 전문직업인으로서 공인중개사의 품위를 저버리고 시장 질서를 해치는 경우에는 과태료, 자격정지,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보다 엄격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확실한 집행을 위해 시의 행정사무감사와 국토교통부의 정부합동감사를 통해 정례적으로 이행실태를 확인하고 이 결과를 향후 지자체의 성과관리 평가지표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세종시는 4월 1일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이 가능한 만큼 먼저 직장교육을 통해 공무원이 솔선수범하여 전자계약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산하기관 · 시민사회단체 및 소방서, 교육기관 등으로는 전문강사를 파견하여 부동산 전자계약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환 기자

"불행한 역사 되풀이하지 말자"

김지철, 블라디보스톡 한국교육원 등과 역사기행 업무협약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이 러시아와 중국 일대의 독립운동 유적지를 둘러하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한국교육원 및 중국 용정중학교와 '창의융합 인문학 역사기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창의융합 인문학 역사기행은 충남교육청이 오는 7월 말부터 10박 11일 일정으로 중국의 하얼빈 등 독립운동 유적지, 백두산,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탐방하는 행사로 김 교육감과 교육청관계자가 지난 19일부터 26일까지 사전답사 및 관련기관 업무협약을 진행하고 있다.

김 교육감을 비롯한 사전답사단은 20일 러시아 지역 답사 예정지인 고려인문화센터와 우스리스크 지역에 있는 독립운동가 최재형 생가, 이상설 유허비를 둘러보고 21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대한민국 총영사관을 방문해 청소년 한국문화축제를 참관하고, 블라디보스톡 한국교육원과 인문학기행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2일에는 중국으로 건너가 하얼빈 731부대, 안중근기념관을 방문하고 하얼빈 이공대를 방문해 유학생과 간담회를 가졌으며, 23일에는 윤동주 시인의 고향인 용정지역을 방문해 용정중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전답사단 일행은 이후 백두산과 집안지역 광개토대왕비, 장군총 그리고 안중근, 신채호 선생 등이 처형당하거나 수감생활을 했던 대련지역 뤼순감옥을 둘러본 후 26일 귀국할 예정이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일본의 식민지배 역사왜곡, 중국의 동북공정 등은 동북아시아 국가 간 평화를 해치고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더욱 우리 충남 학생들이 치열하고 고난했던 우리 독립운동사를 올바로 인식하고 민족의식을 고취해 우리나라에 두 번 다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교육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창의융합형 인문학 기행은 인문 소양 교육 기회가 부족했던 학생들에게 지리, 문학, 역사 등 각 분야를 아우르는 체험중심의 인문 소양 교육을 통해 동북아시아의 역사문제에 대응하고, 평화와 번영의 통일한반도를 이끌어갈 인재 육성을 위한 민주시민 교육 프로그램으로, 도내 고교 1학년 학생 60명을 선정해 지난 14일 발대식을 가진 바 있다.

이정복 기자

이인제 중앙선대위원장, 홍준표 후보 지지 호소

"안보 위기 · 평화통일 달성시킬 후보"

자유한국당 대전시선거대책위원회는 24일 대전 유성시장에서 이인제 중앙선대위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이은권 대전시당위원장, 진동규 유성갑당협위원장, 이현 유성을당협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 지원 유세를 하며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이인제 공동위원장은 유세에서 "경제는 수십년동안 성장이 멈춰 아이들 취직도 안 되고, 서민 장사도 안 된다. 경제 때문에 나라가 무너질 거 같은 위기 상황에서 북한의 핵 · 미사일 도발 때문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내일 터진다고 해도 조금도 이상할 게 없는 급박한 안보 위기 상황"이라며 "미국과 손을 꼭 잡고 한 덩어리가 돼 중국을 설득해서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아내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포기 시킬 수가 있는 후보는 홍준표 후보가 유일하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 위원장은 이어 "지금 미국이 불신하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미국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마음대로 중국하고 러시아 등과 협상해서 무슨 일이든지 할 것"이라며 "이번에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보수 우파 대통령이 나와야만 미국과 신뢰를 갖고 손을 잡고 중국을 설득해 어떻게 해서든지 북한의 김정은이 더 이상 핵과 미사일을 갖고 도발하지 않도록 주저앉힐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또 "사드 배치를 극렬 반대하다가 다음 정부로 미루라고 하는 후보. 이미 사드가 들어와 배치되는 중인데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이 할 얘기가 아니다"라며 "한미 간에 합의한 것도 반대하고 뒤집는 사람, 꼭 거기에다가 대통령이 되면 평양부터 달려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안 된다.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미국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이 폭발 직전의 한반도 전쟁 위기 어디로 치닫겠습니까"라며 홍 후보 지지를 부탁했다.

이 위원장은 이와 함께 "처음에 사드 반대하다가 지금 와서 상황 변화니까 사드 찬성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며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후보도 안된다"며 "사드를 그렇게 반대했기 때문에 중국이 우리를 만만하게 보고 저렇게 무자비하게 우리 기업들에 대해서 보복하고, 한국에 오는 관광객들을 못 들어오게 틀어 막고 있는 거 아니냐"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경제는 나빠지면 우리가 고통스러울 뿐이지만 안보위기가 터지면 나라가 망하게 되고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라며 "안보 만큼은(국가) 존망의 문제다. 홍준표 후보만이 이 안보위기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추구할 수 있다고 후보"라고 강조했다.

이정복 기자

딸기 소비 나눔행사 가져

농협 충남지역본부(본부장 유찬형)는 우리농업지키기운동본부(충남본부장 류병관)와 함께 농가주부모임충남연합회(회장 김금자)를 찾아 24일 논산시농업기술센터에서 농협임직원, 농가주부모임 회원 50여명과 함께 농가소득 5천만원 달성과 이웃에 대한 사랑나눔을 실천하고자 우리지역에서 생산하는 우수한 딸기로 딸기잼을 만들어 이웃들과 함께하는 나눔 행사를 가졌다.

최근 값싼 수입과일에 밀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딸기 농가를 돕고, 딸기 소비확산을 위한 일환으로 진행했으며,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려운 이웃 500여 가정(500kg)에 지원하기로 했다.

딸기잼 재료로 쓰인 딸기는 논산시 관내 딸기농가에서 직접 수확해 싱싱하고 달콤한 딸기로 요즘 입맛에 맞게 달지 않고, 방부제나 색소가 첨가되지 않은 논산시 농업기술센터의 레시피를 통해 고급 수재딸기잼으로 정성스럽게 만들어 이웃과 함께 나눴다.

우리농업지키기운동본부 충남본부(본부장 류병관)는 올해 사업으로 농본기 영농현장 '사랑의 이동밥차' 운영, 농산물 소비촉진 캠페인, 초등학생 대상 사랑의 씨앗심기, 저소득층에 대한 명절음식 지원, 농촌어르신 개안수술, 장수사진 지원등 다양한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송병배기자

대전도시철도 '전동차 바닥 래핑 광고' 출시

계단 벽면 · 버스 · 열차 옆면 등 활용 사람들 이목 집중

대전도시철도공사는 지난 20일부터 '전동차 바닥 래핑광고'를 선보였다.

그 동안의 광고는 주로 조명 광고, 액자형 광고 위주였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전동차 바닥 래핑광고'를 시행한 것이다.

래핑광고는 계단 벽면과 버스 · 열차 옆면 등을 활용한 큰 규모의 광고를 시행함으로써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광고다.

이번 전동차 래핑 광고는 도시철도 승차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사회적 현상에 착안하여 신규 광고 모델을 개발한 것으로 지역의 문화 축제도 알리고 수익도 창출하기 위해 전동차 바닥 전체에 트릭아트 방식(3차원 입체 그림)으로 래핑 광고를 시행하게 됐다.

공사는 전동차 래핑 광고가 대형 광고인 특성을 고려하여 고객의 쾌적성에 주안점을 두고 상업성도 검토한 후 자체 심의를 거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관심 있는 광고주는 공사 부대사업팀(042-539-3087)으로 연락하면 된다.

공사 김민기 사장은"이번 전동차 바닥 래핑 광고는 1일 11만명이 이용하는 전동차 객실 내에서 표출되는 광고로 다른 광고매체보다 광고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동차 객실의 환경도 유지하면서 고객에게 재미와 즐거움을 주는 안정감 있는 디자인의 광고를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모란역서 건강한 봄 만나보세요"

aT, 봄맞이 특판 행사…농식품 찬들마루 판매 활성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여인홍)는 코레일(사장 홍순만), 코레일유통(사장 유제복)과 함께 24일부터 29일까지 6일 간, 지하철 모란역사 내에 농공상융합형 우수제품 전용 판매 · 홍보관 「농식품 찬들마루」에서 봄맞이 특판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농공상융합형 중소식품기업의 우수제품 판로개척을 지원하고자 지난해 개장한 「농식품 찬들마루」의 판매를 활성화하고 인지도 제고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행사에는 농식품 찬들마루의 판매 우수기업과 지난 국제외식박람회에서 유통채널 바이어로부터 큰 호평을 받은 업체들이 함께 참가하게 된다.

농공상기업 전용판매관 농식품 찬들마루는 농공상 지정기업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수도권 소비자들에게 국산 원료를 사용한 양질의 우수 전통식품과 유기농 식품 등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이번 행사기간 동안에는 국내산 레몬머틀차, 고흥석류, 성주 참외, 국내산 생과일음료 등 봄의 기운을 불어 넣어 줄 다양한 지역 특산품들이 소개될 예정이다.

특히 쌀소비 촉진을 위한 프로모션의 일환으로 모란역 매장에서 일정금액 이상을 구매하는 고객들에게 국내산 무농약 찹쌀과 녹미를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이는 무농약 현미와 기능성 쌀을 홍보하는 기회를 통해 쌀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함과 동시에 농가의 소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함이다.

aT 관계자는 "이번 봄맞이 행사를 통해 농업인과 중소식품기업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농식품 찬들마루가 소비자들에게 우수 농식품을 판매하는 모란역의 명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병배기자

황금 복 거북이가 안내하는 스탬프투어

청양군, 관광 활성화 나서…오는 11월 말까지 진행

청양군(군수 이석화)은 청양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특별한 이벤트를 즐길 수 있도록 황금 복 거북이가 안내하는 스탬프 투어를 마련, 관광 활성화에 나섰다.

이번 청양 관광 스탬프 투어는 이달부터 오는 11월 말까지 8개월간 진행되며, 천장호 출렁다리, 장곡사, 백제문화체험박물관, 칠갑산, 칠갑산천문대, 칠갑산자연휴양림, 목재문화체험장, 다락골줄무덤, 고운식물원, 모덕사 등 총 10곳에서 참여할 수 있다.

각 관광지에는 스탬프 투어 리플릿과 함께 보관함이 설치돼 있으며, 참여방법은 해당 관광지에서 스탬프를 찍은 후 온라인으로 스탬프를 2개 이상 찍은 리플릿을 사진으로 찍어서 청양군청 홈페이지 소통참여-홍보게시판이나 청양군 공식 블로그 상단 카테고리 메모(메모게시판)에 올리면 된다.

또 오프라인으로는 청양군청 문화체육관광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청양 관광 스탬프 투어는 다수 관광객 유치 및 재방문을 유도하고, 황금복거북이를 테마로 청양만의 특별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봄부터 가을까지 진행하기 때문에 청양의 계절별 아름다움을 충분히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양=정상범기자

●동 정●●●

청소년의회교실 입교식

김경훈 대전시의회 의장= 25일 오전 11시20분 둔산 그랜드볼링센터에서 열리는 대전광역시장기 전국장애인 볼링대회에 참석한 뒤 오후 2시 10분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청소년의회교실 입교식 참석.

판암2동 한밭경로당 준공식

한현택 동구청장= 25일 오전 11시 열리는 판암2동 한밭경로당 준공식에 참석.

효문화뿌리축제 맞춤형 포럼

박용갑 중구청장= 25일 오전 10시 뿌리공원 다목적실에서 개최되는 '제9회 대전효문화뿌리축제 맞춤형 2차 포럼'에 참석.

아동 · 여성안전지역연대회의

장종태 서구청장= 25일 오후 3시 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아동 · 여성안전지역연대회의' 참석.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교육

허태정 유성구청장= 25일 오전 9시 30분 구청 대강당에서 열리는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사전교육에 참석.

한국전통침구학회 발대식

박수범 대덕구청장 = 25일 오후 2시 구청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한국전통침구학회 대전지부 발대식에 참석.

장염비브리오균 식중독 주의 당부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삶은 뒤 냉동한 고등류, 전복류, 새우류 등 횟감용이 아닌 제품의 섭취로 인한 장염비브리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제품의 조리 · 섭취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염비브리오 식중독은 어패류, 연체동물 등의 표피, 내장, 아가미 등에 있는 장염비브리오균이 칼, 도마 등을 음식으로 전염된다.

이 세균에 의한 식중독을 예방하려면 ▲어패류를 보관할 때는 신속히 위생적으로 처리하여 5℃ 이하에서 냉장보관 하고 ▲고등류 등 냉동 어패류는 흐르는 수돗물로 2~3회 정도 잘 씻고 속까지 충분히 익도록 가열 · 조리(내부 85℃ 1분 이상)하여 섭취해야 하며 ▲조리 전 · 후에는 손을 반드시 비누 등 세정제를 이용하여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씻고 ▲칼과 도마는 전처리용과 횟감용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사용한 조리 도구는 세척, 열탕 처리하여 2차 오염을 방지하는 게 중요하다.

서구 관계자는 "관내 유통판매업체 및 횟집 등을 대상으로 수거 · 검사 등을 실시하고, 식중독 예방 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해 여름철 수산물로 인한 식중독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市, 2017 하수도 종합정비 4개 사업 총 1140억 원 투입

사업효과 · 재정여건 고려 단계별 추진

대전시(시장 권선택)는 기상이변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 및 지반침하(싱크홀) 등 재난 · 안전사고 예방과 함께 하수도 악취 발생에 따른 생활불편을 해소하여 하수도 정비 종합계획을 추진한다.

안전한 하수도 구축을 위하여 지반침하 대응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및 도시침수대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침수 예방사업을 병행하고, 현재 60%인 하수도의 분류화율을 2035년까지 100% 달성을 목표로 사업효과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2015년부터 2개년에 걸쳐 타 광역시의 2~7배에 해당하는 847km의 노후 하수관로 전수조사를 시행하였으며, 특히, CCTV · 육안조사 외에 GPR탐사 11km(224개소), 시추공 12개소, 내시경 50개소를 추가적으로 시행하여 조사의 정확도 및 신뢰성도 향상시켰다.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결과 우선 정비가 필요한 161㎞에 대하여 2026년까지 2,058억 원을 투입하여 연차별로 사업을 시행하고, 침수발생 및 우려지역(3개 지역, 396ha)에 대하여는 환경부에 중점관리구역으로 지정 · 신청하고 침수 예방사업을 시행하여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하수관로 분류화 사업도 2017년도에는 4개 사업에 총 1,140억 원을 투입하여 본격 추진하며, 2016년도에 완료된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내 하수관로 확장 1단계 공사에 이어 금년 2단계 사업이 연내 완료되면 합병정화조를 거쳐 대청호로 직접 방류되던 오수가 대전하수처리장으로 전량 유입 처리됨에 따라 대청호 상수원 수질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한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은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하수도 정비사업을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중앙정부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안정적으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영호 기자

안전한 보행자 중심 교통체계로 본격추진

市, 보행교통 개선계획 수립 완료… 15개 사업 254억 원 투자

대전시(시장 권선택)는 제1차 보행교통 개선계획을 확정 · 고시하고 본격 추진한다.

보행교통 개선계획은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에 의한 5년 단위 법정 계획으로, 시는 '걷고 싶은 보행친화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해 2021년까지 ▲안전한 보행공간 ▲이동이 자유로운 보행공간 ▲쾌적한 보행 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횡단보도 설치, 부적합 볼라드 정비, 보행자우선도로 조성, 보도폭 협소구간 확장, 보도바닥 정비 등 3개 분야 15개 사업에 총 254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안전한 보행공간 조성 분야는 도로 및 교차로 40개소 횡단보도 설치, 보도육교 및 지하보도 주변 4개소 횡단보도 설치, 부적합 볼라드 전면 교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45개소 재정비, 보행자우선도로 시범사업, 14개 구간 보도설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동이 자유로운 보행공간 조성 분야는 보행자 중심 교통신호 운영 확대, 대각선 횡단보도 5개소 추가 설치, 보도 확장 도로다이어트와 대중교통과 보행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 전용지구 도입을 검토한다.

쾌적한 보행공간 조성 분야는 17개 도로구간 보도바닥 정비, 도로와 보도의 단차를 낮추는 사업, 불법주차 단속 강화, 진입제한 볼라드 및 CCTV를 설치하고 보도설계 시공 매뉴얼도 마련할 예정이다.

시 양승찬 교통건설국장은 "계획한 사업을 충실히 이행해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를 만들겠다"며 "보행자 사고를 30% 줄이고, 보행교통 수송 분담률을 높여 자동차로 인한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영호 기자

유성구 봄철 불법중개행위 집중단속 실시

3~4월 700여개 사업장 점검으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대전 유성구(구청장 허태정)는 봄철 이사철인 3~4월 전 · 월세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부동산 불법중개 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3월 14일부터 4월 21일까지 2개 단속반을 편성하여 관내 700여개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행위, 무등록 중개행위, 미신고 중개보조원 고용행위, 중개보수 과다 수수 행위, 계약서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 분양권 이중계약(업다운 계약)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집중단속으로 적발된 ▲미신고 중개보조원 고용행위 1건 ▲중개사무소 무단 폐쇄 3건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부동산 중개업소 개설등록 취소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또한 중개보조원의 전화 안내, 손해배상 보증보험 등의 착오 게시 등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행정 지도했다.

허태정 유성구청장은 "공인중개사의 도덕적 해이가 최근 몇 년 사이 많이 개선된 것도 사실이나, 아직도 문제가 많다. 집중단속뿐만 아니라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부동산거래시장을 어지럽히는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봉관기자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본격 추진

동구, 헤드스파 뷰티코디네이터 양성과정 첫 개강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는 지역특성에 맞는 고용창출과 인적자원개발을 목표로 추진 중인 2017년 지역 · 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본격 출발했다.

구에 따르면 청년층, 경력단절 여성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맞춤형 일자리교육을 진행하는 헤드스파 뷰티코디네이터 양성과정을 24일 대전보건대학교에서 첫 개강했다.

헤드스파 뷰티코디네이터 양성과정은 20명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대전보건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교육을 주관하며 이날 개강식을 시작으로 오는 9월까지 실무중심의 전문교육을 진행하게 된다.

구는 또 오는 5월 우송대학교에서 맞춤형 외식 · 카페 취 · 창업자과정, 6월에는 대전보건대학교에서 유전자분석전문가 양성과정을 개강할 예정이다.

특히 과정 수료 후에도 취업을 위한 전문가 멘토링을 지원함으로써 교육생들의 취업성공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구 관계자는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올해까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7년 연속 선정되는 영예와 함께 꾸준한 취업률로 지역주민 고용창출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고 있다"며 "올해도 산 · 관 · 학 협력에 바탕을 둔 내실 있는 교육과 일자리 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호 기자

daejeontoday.com

토요문화마당 29일 스타트

중구, 4월~10월까지… 옛 대전극장거리 일원 활성화 도모

80년대 대전의 명동으로 불리며 대전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대전 · 제일극장 거리의 기반시설이 정비됨에 이어 이곳을 문화예술이 흐르는 거리로 되살리기 위한 문화행사가 전개된다.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매년 전개해 오던 토요문화마당 행사를 원도심 거리재생과 연계한 상권활성화를 위해 옛 대전 · 제일극장 거리(대제로 커플존)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오는 29일 올해 첫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중구가 주최하고 중구문화원이 주관하는 4월 '대제로 커플존' 토요문화마당은 '봄바람 인디페스티벌'을 주제로 29일 오후 3시부터 9시까지 옛 대전극장과 제일극장을 잇는 500m 구간에서 펼쳐진다.

4월 행사는 활기찬 봄을 맞아 5개팀의 인디밴드가 펼치는 신나는 음악회를 중심으로 10개 팀의 버스킹 공연과 아트 프리마켓, 문화예술 체험코너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번 4월 행사를 필두로 '대제로 커플존'에서는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대전 맛집 4대 천왕, 동아리 문화페스티벌, E 스포츠 대회, 국제문화 페스티벌, 대학가요제' 등이 메인 이벤트로 계획되고 있다.

박용갑 청장은 "옛 대전극장과 제일극장 거리는 '시내'로 불렸던 대전의 중심이었다"며 "이곳에 대한 기반시설이 완비된 만큼 문화예술을 덧붙여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로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선기자

출산 · 다자녀 지원 정책개발 주문

박수범 대덕구청장이 인구 감소와 유출에 대비한 출산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줄 것을 직원들에게 주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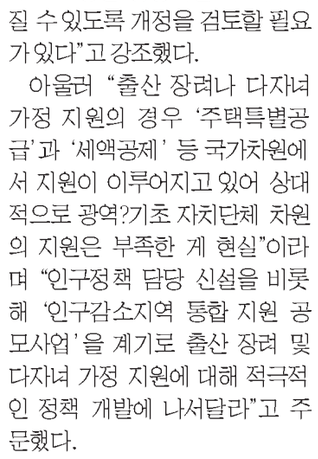
박수범 대덕구청장은 24일 오전 구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주간업무회의에서 "우리 구는 최근 5년 동안 연 1%씩 인구가 감소하는 등 대전에서 인구 감소 추세가 가장 심한 상황"이라며 "이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수범 구청장은 "인구 감소에 대응해 출산 장려책도 중요하지만 다자녀 가정 지원도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우리 구에서 제정해 운영 중인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를 출산 장려와 더불어 '다자녀 가정에도 다양한 행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출산 장려나 다자녀 가정 지원의 경우 '주택특별공급'과 '세액공제' 등 국가차원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광역?기초 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은 부족한 게 현실"이라며 "인구정책 담당 신설을 비롯해 '인구감소지역 통합 지원 공모사업'을 계기로 출산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대해 적극적인 정책 개발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박수범 구청장은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 지난 주말에 펼쳐진 동춘당 문화제의 성공적 마무리에 대해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대통령 선거 관련 업무 철저와 선거로 미뤄진 대덕구 주요 추진 사업이 선거 이후 곧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김태선기자



회덕농협 조합원 자녀 장학금 총6990만원 수여 대전회덕농협

(조합장 김영국)은 24일 오전 10시 회덕농협 3층 대회의실에서 조합원 손 · 자녀를 대상으로 대학교 신입생 79명, 고등학교 신입생 51명등 총 130명에게 총 6990만원의 장학금 수여식을 실시했다.

송강사회복지관, 알콩달콩 행복한 동행-나들이 진행 송강사회

복지관은 지난 22일 한전원자력연료(주)의 후원으로 다문화 "알콩달콩 행복한 동행—나들이"를 진행했다. 이날 결혼이주여성 친정 아버지, 어머니, 남편, 자녀와 함께 서울 코엑스 아쿠아리움을 다녀왔다.

"글로벌 성장도시 유성 배워요"

베트남 동나이성 대표단 12명 방문 벤치마킹 나서

베트남 지방정부 공무원들이 글로벌 성장도시 유성을 배우러 왔다.

대전 유성구(구청장 허태정)는 24일 베트남 지방정부 고위공무원 12명이 유성구의 자치행정 및 특수시책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단은 구청을 방문해 유성구의 일반현황과 주요사업 청취와 족욕체험장 체험, 버스투어 시간을 가졌다.

특히 방문단은 베트남 동나이성 쩐반뜨 당비서를 비롯해 기획투자, 재무, 건설국장들로 이뤄져 유성과 동나이성 간 교육, 문화,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베트남 고위공무원들의 선진 지방자치 벤치마킹은 충남대 글로벌리더십개발센터 국제연수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다.

박봉관기자

서산시 올해 첫 모내기 '시작'

조운벼 · 기라라벼 품종 심어… 극조생종으로 차례상에서 햅쌀로 사용 가능할 전망

서산지역에서 첫 모내기가 24일 부석면에서 시작됐다.

서산시에 따르면 유병열(28세, 지산리)씨가 부석면 지산리에 있는 6,000㎡의 논에 조운벼, 기라라벼 품종의 벼를 심었다.

조운벼, 기라라벼 품종은 추석명절 전에 수확이 가능한 극조생종으로 차례상에서 햅쌀로 사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유씨는 매년 이모작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도 8월 중순경 벼를 수확 후 양파를 파종할 예정이다.

심현택 서산시 농정과장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 농산물 시장개방과 쌀소비 감소 등 어려운 농촌여건 해소를 위해 이모작, 논 타작물 재배 등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재배기술을 연구해 보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산지역의 올해 모내기 면적은 18,208ha로, 이번 첫 모내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모내기가 시작되면 6월 중순경 마무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산= 김정한기자

2017년 예비사회적기업 공모

청양군 신규지정 신청 오는 30일까지

청양군(군수 이석화)은 오는 30일까지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예비사회적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유급근로자를 3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고 영업활동을 하며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일자리제공, 사회서비스제공, 지역사회공헌, 혼합형 등의 사회적목적 실현형태가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 · 단체는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군 지역경제과 시장고용팀(940-2332)으로 하면 된다.

청양=정상범기자

중소기업 바로알리기 IDEA공모전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중소기업 편견-ZERO 대국민 캠페인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제8회 중소기업 바로알리기 IDEA 공모전」을 진행한다.

응모기한이 다음달 7일까지인 이번 공모전은 '중소기업 편견-ZERO 대국민 동참유도'라는 주제로 중소기업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개인이 성장해 꿈과 끼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자아실현 인식도'와 중소기업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걷어내면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견인차임을 알 수 있는 '우호적 사회 인식도' 제고를 위해 기획됐다.

초 · 중 · 고, 대학생을 포함한 일반 국민 누구나 참여가능하며 동영상, 포스터, 수필 3개 부문과 학생들을 지도한 교사를 대상으로 한 지도자보고서 1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대상 및 분야별 최우수상 등을 포함해 총 45명에게 상장과 부상이 수여되며, 대상 수상자에게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상과 150만원의 부상이 전달된다.

(042)538-3030

맥키스컴퍼니 산소소주 O2린 500㎖ PET 제품 출시

야외 활동 인구 증가로 휴대성과 편의성을 강화한 제품 선보여

충청권 주류 대표기업 맥키스컴퍼니(옛 선양 / 회장 조웅래)가 산소소주 O2린(오투린) 500㎖ PET 제품을 24일 출시했다.

야외 활동 인구 증가로 가정용 페트(PET) 제품을 찾는 소비자가 늘어 휴대성과 편의성을 강화한 제품이다. 이 제품은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등 소매점에서 구매 할 수 있다.

맥키스컴퍼니는 기존 일반 페트제품 200㎖, 640㎖, 1.8ℓ 에 이어 신용기로 500㎖ 제품을 출시하며 구성을 다양화하고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혔다. 담금주로는 1.8ℓ, 3.6ℓ, 5ℓ가 있다. 이번 O2린 500㎖ 페트 제품 출시 배경은 캠핑, 동호회 모임 등 야외 활동 인구 증가로 휴대하기 편하고 경제적인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니즈에 맞춰 선보이게 됐다.

알코올 도수는 기존 제품과 같은 17.8도이며 출고가격은 1524원이다.

산소소주 O2린은 맥키스컴퍼니가 술에 자연산소를 넣는 세계유일의 기술인 산소용존공법을 개발해 한국, 미국, 중국, 일본에서 특허를 획득했고 타제품보다 산소가 3배 많아 30분 먼저 깨는 숙취해소 능력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어 세계적 의학전문 학술지 Acer지에 2010년 5월 하이라이트 논문으로 발표됐다.

송병배기자

KT&G 잎담배 경작농민 건강검진 등에 4억원 지원

KT&G(사장 백복인)가 국내 잎담배 농민들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4억원을 지원한다. 이 지원금은 저소득 가정 등 어려운 환경의 잎담배 경작인 1100명에 대한 종합 건강검진과 농가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활용된다.

잎담배 농사는 특성상 기계화가 어렵고 대부분 수작업으로 이루어져 노동강도가 대단히 높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국내 잎담배 경작 농민의 평균 연령이 타 작물에 비해 높은 데다, 농촌인구의 지속적 감소로 노동력 확보가 어려워 고충을 겪고있다.

국내 영업 중인 담배기업 중 유일하게 국산 잎담배를 구입하고 있는 KT&G는 농가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작인 무료 건강검진과 중고생 자녀 교복 지원 등에 지난 2013년부터 지금까지 총 12억 5000만원을 지원한 것이 대표적이다.

또한 경작인별 잎담배 예정 판매대금의 30%를 4~6월경에 사전 지급해 농가의 영농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여름철 일손 부족을 겪는 잎담배 농가들을 돕기 위해서는 임직원들이 11년째 직접 수확 지원 봉사활동에 나서고 있다.

김태선기자

충남농협, 휴일 반납마무리 배화접 영농인력 집중 농협 충남지역본부(본부장 유찬형)는 막바지에 접어든 배화접 영농현장을 찾아 지원활동에 적극 나섰다.충남농협은 아산시지부 직원들과 함께 50여명의 '농촌사랑 봉사단'을 구성해 지난 22일 아산시 음봉면 일대 대호농원(농장주 김영섭) 등 과수농가 2곳으로 나뉘어 65400㎡(2만여평)의 과수원에서 배화접을 실시했다.

아산폴리텍대, 테크노밸리에서 설명회 개최 한국폴리텍대학 아산캠퍼스(학장 윤기설) 듀얼공동훈련센터는 지난 21일 아산테크노밸리 기업관리사무소에서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2017년도 일학습병행제 홍보 및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아산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캠페인 실시

아산시는 지난 18일, 아산시 온양6동 인근에서 수거보상제 참여자와 아산시청 주택과 옥외광고물팀 직원 합동으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캠페인을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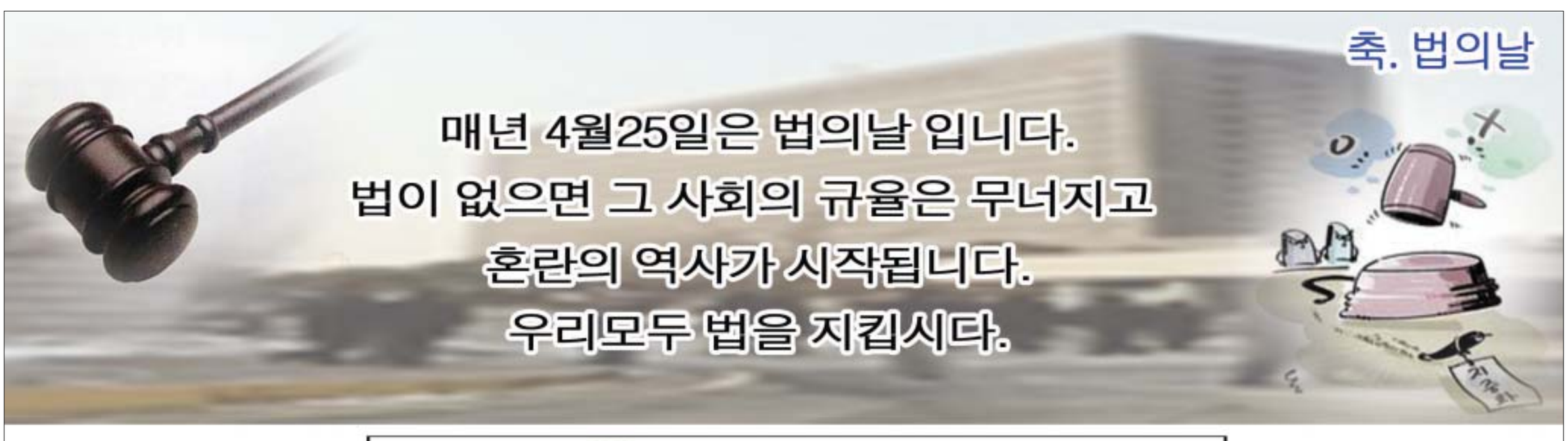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란 시민이 직접 불법광고물을 수거하고 그 종류 및 수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처음 도입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도입 첫해에 9만6509장 수거했고 올해 1분기 동안 4만4622장 수거한바 이런 추세라면 지난해보다 올해는 수거량이 2배정도 증가할 전망이다.

시는 올해 참여자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소속감을 높이고자 안전조끼 착용한 상태로 도로변에서 불법광고물 수거하며 수거보상제를 홍보했다.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수거하는 것보다 친근한 마을 단체원들로 구성된 이웃주민들이 직접 수거하는 만큼 시민들의 호응이 높아 불법광고물을 게시하는 양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산=리량주기자



대전충남지방병무청
Military Manponwer Administaration

기능인들의 아름다운 재능기부

당진 순성면서 마을표지석 제작 등 봉사

정한기 충남 기능선수회 회장과 김진상 부회장을 비롯한 충남 기능선수회 회원들이 지난 22일과 23일 이틀 동안 당진시 순성면 본 1리와 본 2리에서 아름다운 재능기부를 펼쳤다.

이들은 본 1리에서는 마을 표지석을 수리하고 본 2리에서는 마을표지석을 새롭게 제작했으며, 두 마을에서 대형 및 소형 농기계 수리와 영정사진 촬영, 이·미용 서비스 봉사 활동을 벌였다.

특히 회원들의 재능기부 봉사 활동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충남지사 관계자와 신성대학교, 공주대학교, 충남도립대학교 및 한국 폴리텍Ⅳ대학 홍성캠퍼스 관계자를 비롯해 충남 마이스터 협의회 회원들도 함께 해 훈훈함을 더했다. 당진=최근수기자

유구읍, 걷기운동으로 화합의 장 마련

제13회 유구사랑 건강걷기대회에 1천여명 참여

공주시 유구읍(읍장 김창수)이 주민의 건강증진과 환경보호를 위해 지난 23일 1천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유구읍생태하천 일원에서 '제13회 유구사랑 건강걷기대회'를 개최했다.

공주시 유구읍 체육회(회장 지상빈)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주민의 건강증진과 환경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매년 1천여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등 지역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오전 7시 유구초등학교에서 출발해 유구천 생태공원과 자카드 마케팅센터를 거쳐 다시 유구초등학교로 돌아오는 5㎞ 구간을 걸으며, 데이지, 금잔화, 마가렛 등 싱그러운 봄꽃을 보며 자연을 만끽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관내 초·중·고 학생들이 대거 참여해 환경보호 캠페인과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으며, 유구여성소방대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상황 시 대처요령에 대한 시범교육을 실시하여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지난해와 달리 이번에는 공주시보건소에서 건강홍보관을 운영, 어르신들께 혈압, 당뇨 검사 등을 실시했으며, 체육회에서 참가자에게 짜장면을 제공하고 유구자율방제단원, 유구여성소방대원, 유구농가주부모임 회원들이 일사분란하게 서빙 봉사를 실시했다.

한편 이날 참가자 전원에게 기념 티셔츠 증정과 추첨을 통해 세탁기, 자전거 등의 200여점의 푸짐한 경품이 제공됐으며, 환경정화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에게는 3시간의 자원봉사 시간이 주어졌다. 공주=정상범기자

전주·청주 시 콜센터 상담사, 아산 방문

'지자체 콜센터 협의회' 아산시 개최…정보교류의 계기

아산시 콜센터(T.1577-6611)는 지난 21일, 전주시 민원콜센터 센터장외 2명과 청주시 콜센터 센터장외 3명이 우리시 콜센터 사무실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전주시, 청주시 콜센터 상담사들이 '지자체 콜센터 협의회'를 아산시에서 개최함에 따라 방문하게 됐다.

전주시 및 청주시 콜센터 상담사들은 아산시 콜센터의 우수한 업무 프로세스를 벤치마킹하는 기회가 되고 각 지자체 콜센터 간의 정보교류도 하는 계기가 됐다.

정선우 아산시 콜센터 센터장은 "타 지자체 콜센터 상담사들이 방문해 많은 정보공유가 있었고, 아산시 콜센터의 우수한 업무 프로세스를 알리게 되어 기뻤다. 지자체 콜센터 간 상호교류를 통한 새로운 정보와 기술습득으로 시민들이 감동할 수 있도록 콜센터를 통한 시민응대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트럼프 레드라인 못넘을 듯…차기 정부 한미관계 중요"

현대경제연구원, '최근 북한 리스크 전망과 우리의 대응' 긴급좌담회

북한이 전쟁을 피하기 위해 당분간 트럼프 정부의 레드라인(Red line)은 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만 한미동맹 경색이미·북 충돌 가능성을 높이는 만큼 차기 정부의 한미관계가 중요한 키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24일 오후 2시 전경련회관 47층 플러스감마룸에서 '최근 북한 리스크 전망과 우리의 대응' 긴급좌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좌담회는 이춘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하고 송원근 한경연 부원장, 황성준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강호 한국국가전략포럼 연구위원, 배정호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토론에 참여했다.

◆ 美 트럼프 행정부, 북핵 해결 의지 매우 강해… 北 당분간 강력한 도발은 자제할 듯

발표자로 나선 이춘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애쓰는 이유는 미국과 전쟁을 하지 않고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 위해서다"며 "하지만 미국이 북한의 의도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기에 두 국가가 타협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미국과 북한의 군사적, 경제력 격차를 볼 때 현재의 상황은 탱크와 경차(輕車)가 치킨게임을 벌이는 꼴이다"며 "미국이 이 게임에서 물러설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전망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 문제에 대해 군사적 해결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북한은 미국의 묵시적 레드라인(red line)을 넘는 일을 자제하고 있고 당분간 이러한 상황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하지만 최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3발이 사실상 실패한 것은 미국의 군사적 대응의 결과라는 주장이 해외 전문가들로부터 제기되는 등 미국의 군사적 대응이 시작되었다는 정황과 견해도 있다"고 말했다.

◆ 美 군사적 목적 달성할 수 있는 능력 보유…군사적 충돌 막으려면 차기 정부에서 한미관계 어느 때보다 중요해

이춘근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미국 군사력의 과학기술 수준은 예상보다 매우 높은 수준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군사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군사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이 같은 여건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한국의 의지와 북한의 도발 정도에 따라 미국의 군사행동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황성준 문화일보 논설위원은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의 존재 때문인데 한미관계가 경색될 경우 미국은 북한 공격에 심리적 부담을 덜 수 있어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송원근 한경연 부원장은 "한국 정부가 의도하지 않은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서는 차기 정부에서의 한미관계는 그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강호 한국국가전략포럼 연구위원은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에게도 그동안 '방치와 회피'라는 책임이 있다"며 "북핵문제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정리하고 국론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황성준 논설위원도 "북한이 노리는 효과 중의 하나는 북핵에 대한 한국의 국론분열"이라며, "북핵이 가지는 정치적 문제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 美, 중국을 통한 북핵 제거 시도 지속할 것… 효과는 불확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에 대해 황성준 논설위원은 "미국은 일단 '중국을 통한 압박'으로 북핵 제거 시도를 지속할 것이다"며 "하지만 미국의 진짜 칼끝은 북한이 아니라 중국으로 향하고 있는 것일 수 있고 중국도 이를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춘근 선임연구위원은 "중국도 김정은 정권의 붕괴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북핵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만약 중국이 북핵 해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면 아마도 미국의 피할 수 없는 압력에 중국이 굴복할 경우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송원근 부원장은 "경제성장률 저하로 고민하는 중국의 경제여건을 볼 때 미국의 강력한 대(對)중국 통상압력은 의외로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며 "다만 중국의 대북압력이 즉각적인 효과가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고 평가했다. 김정환기자

관세청 '5월 가정의 달' 불법 수입물품 특별단속

관세청은 각종 기념일이 많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선물용품으로 수요가 많은 수입물품을 불법이나 부정하게 국내로 반입하거나 유통하는 것을 엄격히 통제하기 위해 4월 24일부터 6월 2일까지 6주간 불법·부정 수입물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품목은 유모차·분유 등 유아용품, 장난감·문구류 등 어린이용품, 건강보조 식품·의약품 등 효도용품, 기타 선물용품, 가전제품, 식품류 등 15개 품목이다.

관세청은 이들 품목을 대상으로 ①품명을 위장하여 밀수입하거나 규격 등을 속여 부정수입하는 행위, ②저가신고를 통한 관세포탈 행위, ③거가 수입물품을 국산으로 둔갑하는 원산지 세탁 행위, ④유명 캐릭터 등을 위조한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밀수입 또는 부정수입 단속과정에서 관세청은 ①안전인증 기준에 미달하는 물품, ②검역 받지 않은 불량식품, ③유해성이 검증되지 않은 저급물품 등 국민 건강·안전 침해물품의 국내 반입과 유통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박봉관기자

'스타트업 4.0/2017 아이디어 팩토리 제품 전시회'

KAIST, 2014년 제도 처음 도입·운영

'아이디어 팩토리(Idea Factory)'는 대학생들의 신선하고도 기발한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게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국내대학 중 KAIST가 지난 2014년 이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 운영하고 있는 만큼 KAIST 아이디어 팩토리는 자타공인 '국내 1호 아이디어 팩토리'인 셈이다. 올 4월 현재 전국의 10개 대학에서 아이디어 팩토리를 운영 중이다.

KAIST를 비롯해 전남대·경일대·경남대·한국해양대·단국대 등 전국 6개 대학 학생들이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내 개발한 시제품을 한자리에서 모두 볼 수 있는 전시회가 대전에서 열린다.

KAIST(총장 신성철)는 25일 오전 10시부터 대전 본교 스타트업 스튜디오빌딩(W8) 로비에서 KAIST 창업원(원장 김병윤) 주관으로 신성철 총장 등 주요 내·외빈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스타트업 4.0 / 2017 아이디어 팩토리 제품 전시회'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번 전시회에는 KAIST가 6개, 전남대와 경일대·경남대·단국대에서 각각 5개, 그리고 한국해양대가 4개의 시제품을 출품하는 등 6개 대학에서 주목을 받았던 시제품 30종이 전시된다.

KAIST가 이번 전시회에 출품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프린터 ▲멀티 헤드 3D 프린터 ▲아이 시터(Eye Sitter) 등 총 6종의 시제품 가운데 단연 눈에 띄는 제품은 3D 프린팅 교육 콘텐츠인 '놀이동산 속 과학 찾기'다.

'놀이동산 속 과학 찾기'는 KAIST 학생 창업기업인 HiX(대표 서석현)가 자체 개발한 블록 기반의 3D 설계 프로그램을 이용해 제작한 중등 교육용 콘텐츠다. 과학원리를 활용한 교육 및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기존 경쟁업체 제품과의 차별화가 확연하다.

현재 경기지역 일부학교와 캠프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타 지역에서도 판매권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이와 함께 16개의 헤드를 한 번에 제어해서 출력할 수 있는 '멀티 헤드 3D 프린터' 또한 3D 프린터의 한계점으로 여겨지는 대량생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생들의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제품이다. KAIST는 이번 출품작 중 몇몇 제품은 사업화가 바로 가능하기 때문에 곧 상용화될 것으로 내심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이정복기자

한국장학재단, 푸른등대 기부장학생(한국공항공사) 선발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 이하 "재단")은 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에 거주 중인 저소득층 우수 대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공항공사의 기부금으로 '푸른등대 기부장학생'을 신규로 선발한다.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는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대학생 중 형편이 어려움에도 학업에 정진하는 대학생을 지원해달라고 재단에 3억 5천만 원을 기부하였다.

재단은 한국공항공사의 기부금으로 푸른등대 기부장학생 175명을 선발하여 생활비 장학금 100만원(2개 학기)씩 지원할 예정이다.

푸른등대 기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4월 24일(월)부터 5월 10일(수) 18시까지이고, 선발결과는 6월에 발표된다.

푸른등대 기부장학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객상담센터(1599-2290)로 문의하면 된다.

기부를 원하는 법인이나 개인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법인)02-2259-2622, (개인)02-2259-2621으로 언제든 상담이 가능하다. 김정환기자

문화재청 '우리 동네 유적 사회교육 프로그램' 내달 시행

5월부터 11월까지 시행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사)한국매장문화재협회(회장 조상기)와 함께 서울의 한강문화재연구원, 전북의 전라문화유산연구원, 전남의 동북아지석묘연구소 등 전국 8곳의 한국매장문화재협회 소속 회원기관에서 지역의 매장문화재를 활용해 지역민들에게 문화유산을 교육하는「우리 동네 유적 사회교육 프로그램」8개를 5월부터 11월까지 시행한다.

지역의 매장문화재 유적을 탐방 사거나 유물 사진을 촬영하는 체험을 하고, 발굴 체험과 유물 모형을 제작해보는 등 지역민들이 자기 고장에 있는 매장문화재를 활용해 문화유산 교육을 받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전국 각 지역 매장문화재를 주제로 진행될 이번 프로그램은 ▲「매장문화재 보존과 활용의 기록」(서울, 한강문화재연구원) ▲「조선의 시전 행랑과 피맛길 이야기/도자유적 이야기」(서울·경기, 한울문화재연구원) ▲「내 고장 유적 해설가 양성」(대구·경북, 영남문화재연구원) ▲「우리 동네 문화유산 재밌을 지도 - 고고학자과 함께하는 문화유산 알아보기」(전북, 전라문화유산연구원) ▲「제3기 우리 동네 알리미!/제2기 전·세·짚(전북의 세계유산 짚어보기)」(전북·익산, 전북문화재연구원) ▲「오감만족 우리 고장 문화재 즐기기」(전남, 동북아지석묘연구소) ▲「읍성따라 고고씽/문화재 사랑에 빠진 사람들」(경북,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우리 동네 이야기/박물관 이야기」(경북, 한빛문화재연구원)이다.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내용과 일정 등은 한국매장문화재협회 누리집(www.kaah.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봉관기자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아산호 어장 환경정화 활동 전개

아산시와 아산호내수면어업계 공동주관으로 실시

아산시는 지난 21일 전국에서도 손꼽이는 대형 공공수면인 아산호(2,228ha) 수변의 어장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아산시와 아산호내수면어업계 공동주관으로 실시한 이번 활동에 아산시, 아산호내수면어업계,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 대림산업(주) 약 80여명이 참여해 아산호 수변 쓰레기 약 15T을 수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정화활동은 깨끗한 어장을 가꾸고, 어류의 서식환경 개선은 물론, 수산생태계를 복원해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기 위해 실시했으며, 아산호내수면어업계는 이 활동을 매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다.

한편, 아산호 인접 주민 20가구로 구성된 아산호 내수면어업계는 2015년 충청남도부터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로 선정돼 수산자원의 보존·이용 등 어업을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자율관리어업, 수산자원조성, 어장환경 정화활동 등 다양한 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다. 아산=리량주기자

카스, 지코와 함께 제작한 '부딪쳐'

도전하는 청춘들을 위한 응원 메시지 담아

오비맥주(대표 김도훈)는 인기 힙합 아티스트 지코와 젊음의 대표맥주 카스가 함께 기획, 제작한 '부딪쳐'의 음원과 뮤직비디오를 24일 공개했다.

카스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되는 음원 '부딪쳐'는 삶의 방향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는 우리 시대 청춘들을 응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Do whatever you want, 어떤 내가 될진 내가 정해. Why are you conscious of others, 나로 태어났으면 내가 첫째! Do whatever you want, 옳다 싶은 건 그냥 따르면 돼"로 시작하는 랩을 통해 비슷한 연령대의 젊은이들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북돋워 주고 있다. 특히 강렬한 브라스 사운드의 리드미컬한 멜로디가 이어지는 가운데 '부딪쳐 짜릿하게'와 같은 격려의 메시지가 어우러져 요즘 젊은이들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송병배기자

서천소방서, 2017 119소방동요 경연대회 참가팀 모집

서천소방서(서장 이종하)가 올해 개최되는 '제9회 119소방동요 경연대회' 참가팀을 내달 31일까지 모집한다. 대회는 유치부와 초등부로 나눠 각 팀별 15명에서 30명으로 구성하여 소방동요 135곡 중 1곡을 선택해 출전한다.

아산소방서, 영화관에서 이색 직장교육훈련 실시 아산소방서(서장 김득곤)는 24일, 롯데시네마 아산터미널점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영화관에서 하는 이색적인 4월 직장교육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훈련은 평소의 분위기에서 탈피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직원 상호간 대화와 교류의 시간을 갖고자 실시됐다.

당진소방서, 석문면 난지도 전담 의용소방대장 이·취임식 지난 20일 난지 1리 마을회관에서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석문면 난지도 전담의용소방대장 이·취임식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당진시의회 의장 등 내빈과 당진소방서장, 당진소방서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읍면별 의용소방대장 등이 참석했다.

아산교육지원청, 청소년과학탐구대회 예선대회 개최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준표)은 아산 과학인재 육성을 위해 4월 21일(금) 초, 중학생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7 아산시 청소년 과학탐구대회'를 개최했다.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공주소방서, 소화기·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의무화

공주소방서(서장 오영환)는 주택화재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주택에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주소방서 화재대책과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를 설치해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에 관한 모든 구매상담 뿐만 아니라 주택용 소방시설을 공동구매 했으나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무료로 설치 지원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공주=정상범기자

중구,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활동

중구는 기온이 오르면서 식중독 발생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를 오는 28일까지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구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위생담당 직원으로 2개조 4명의 점검반을 편성하고 지난 17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병원 등 153개소를 대상으로 전개하고 있다.

점검반은 무허가 식품원료 사용 및 식재료 보관의 적정성을 비롯해 칼·도마·행주 등의 구분사용과 조리기구의 세척방법, 종사자 개인위생관리 실태, 남은음식 재사용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있다. 지도점검과 함께 오는 28일까지 어린이집과 고등학교, 요양병원 등 90개소를 대상으로 칼, 도마, 행주, 음용수 등의 품목을 수거해 대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김태선기자

"수두 발병 병원 80%가 미신고"

질병관리본부 대한 기관운영 감사… 8건의 위법, 부당 사항 적발

감사원은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를 벌여 8건의 위법, 부당 사항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감사원은 2015년 10월부터 1년 동안 제2군 감염병인 수두를 병명으로 요양 급여를 청구한 서울시내 1499개 의료기관 가운데 81.%가 수두 발병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8월부터 108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감염병 환자 관련 정보를 질병관리본부에 자동으로 전송하는 '감염병 환자 자동신고체계'를 운용하고 있지만, 운용 기관이 적고 시스템 운용이 의무가 아니어서 실효성이 낮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감염병 진단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도 200만 원 이하로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감사원은 주요 공항에 감염병 역학조사관이 제대로 배치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주요 공항에 역학조사관을 증원해 24시간 감염병 감시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검역인력만 31명 증원됐을 뿐 역학조사관 증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김포공항에는 역학조사관이 한 명도 없었고, 김해·제주공항은 역학조사관이 각각 1명만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환기자

국토부, 비틀비틀 차선이탈 막는다… 버스·화물차 경고장치 의무화

지난해 41명의 사상자를 낸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6중 추돌사고와 같은 대형 차량의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버스·화물 등 대형 사업용 차량에 운전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차로를 벗어나는 것을 경고하는 '차로이탈 경고장치(LDWS)' 장착이 의무화된다.

또한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를 활용해 운수 종사자에게 보장된 최소 휴게시간 준수 여부와 최고속도 제한 장치의 무단 해제 여부를 확인하고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한 여객·화물 운전자가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와 같은 내용을 반영한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대형차량은 차체가 크고 많은 인원이 탑승하기 때문에 작은 사고가 나더라도 큰 인명 피해로 직결된다. 이번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버스·화물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이 보다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통안전법 시행령

여객 운송사업자, 화물 운송(가맹)사업자의 차량에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장착토록 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착 비용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토부는 법적 근거 마련 후 장치 장착 의무자에게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비용의 일부에 대한 재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의무에도 불구하고 장치를 장착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중대 교통사고를 일으킨 여객·화물 운전자가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포함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교통안전법 개정을 통해 최소 휴게시간, 연속 근무시간, 속도 제한 장치 무단 해제 여부의 확인에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를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

최소 휴게시간, 연속 근무시간은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및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제21조 제23호)에 규정된 휴게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속도 제한 장치는 자동차 안전기준(제54조 제2항)의 최고속도 제한 장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을 명확화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의한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대상은 여객 운송사업자, 화물 운송(가맹)사업자가 운행하는 차량 중 길이 11m 초과 승합차량, 차량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이며 장착하는 차로이탈 경고장치는 자동차 안전기준의 차로이탈 경고 기능(별표6의29)을 충족해야 한다.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입법예고는 4월 25일부터 6월 3일까지(40일)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7월 18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황금연휴 국내·외 여행때 '감염병' 조심하세요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당부

질병관리본부는 5월 연휴를 맞아 국내·외 여행을 떠나는 국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기온이 높아지는 5월에는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설사 감염병) 발생이 증가한다. 설사 감염병을 예방하려면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고 안전한 물과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음식을 조리한 후에는 신속하게 냉장 보관하고 상할 수 있는 음식은 나들이에 가져가지 말아야 한다.

모기 및 진드기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려면 외출 시 밝은색의 긴 옷을 입고 모기 기피제와 모기장을 사용하는 게 좋다.

진드기를 피하려면 풀밭 위에 옷을 벗어두거나 눕지 말아야 한다. 등산로를 벗어난 산길을 피하고 진드기가 묻어있을 수 있는 야생동물과도 접촉하지 말아야 한다. 또 야외 활동 후 2~3주 이내 발열, 전신 근육통, 가피,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연휴에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여행 전 질병관리본부 모바일 사이트(http://m.cdc.go.kr/)와 홈페이지(http://www.cdc.go.kr/)를 통해 여행국가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출국 시 인천공항 3층 출국장 내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에서 국외에서 발생하는 메르스·AI 인체감염증 등 해외감염병 발생 지역과 감염예방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다. 감염병 오염지역을 방문하고 돌아온 여행자는 입국 시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해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메르스 발생지역이나 중국, 이집트, 동남아시아 등 조류인플루엔자 유행지역을 여행한 후 발열이나 기침, 가래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해야 한다.

해외여행 후 발생한 감염병 환자를 진단·치료한 병원은 지체없이 관할 보건소로 신고해야 한다. 이 밖에 질병 정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문의하면 된다.

김정한기자

대전지방기상청 "2017 기후변화 관련기관 소통 한마당"

기후변화 대응업무 관련 노하우 공유와 상생발전 기회 갖고자

대전지방기상청(청장 서장원)은 4월 24일(월) 대전지방기상청 대강당에서 2017 기후변화 관련기관 소통 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날 기후변화 관련기관 소통 한마당은 대전·세종·충남지역의 기후변화 관련기관 간 효율적인 업무발전을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업무에 관련된 노하우 공유와 상생발전의 기회를 갖고자 마련됐다.

소통 간담회에서는 대전·세종·충남지역의 기후변화 관련 8개 기관이 참석하여 각 기관의 기후변화 대응업무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내용 등이다.

이번 간담회의 주제발표는 총 6건으로 대전지방기상청의 교육 및 홍보활동으로 각 1건 그리고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녹색환경지원센터,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에서 주요업무 및 협업활동현황으로 각각 1건씩 소개했다.

서장원 대전지방기상청장은 "이번 기후변화 관련기관 소통 한마당으로 대전·세종·충남지역의 기후변화 관련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기후변화 대응업무를 추진하는 기회가 되었으면한다."고 말했다.

박봉관기자

대전충남지방병무청, 내달 10일까지 어학병 접수

대전충남지방병무청(청장 백운집)은 내달 10일까지 육군 어학병 접수를 실시한다.

모집인원은 총 125명, 모집분야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아랍어이다.

어학병은 육군 소요부대의 어학능력이 요구되는 직위에 보직되어 필요시 활용된다.

지원희망자는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 → 병무민원포털 → 군지원 → 통합지원서작성에서 접수가능하며 최종합격시 7~9월에 입영하게 된다.

지원자격은 병역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 1~3급의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며 분야에 따라 어학성적 또는 해당국가 거주기간 등의 어학별 요건은 상이하다.

따라서 세부사항은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 → 군지원안내 → 모집안내서비스 → 안내및지원절차에서 확인하거나,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어학병 담당처(042-250-4245)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송병배기자

대덕구,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단 위촉

대덕구는 24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보육전문가와 부모로 구성된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단' 위촉식과 간담회를 가졌다.

대덕구 부모모니터링단은 부모와 보육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돼 2인 1조로 팀을 나누어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어린이집을 방문해 영유아의 건강, 안전, 급식, 위생 등을 모니터링하고 개선을 위한 컨설팅 의뢰 등의 활동을 한다.

구는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크게 대두되는 만큼 부모 모니터링을 통해 보육서비스 제공자(어린이집)와 수요자(부모)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신뢰를 구축해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수범 대덕구청장은 "보육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신 부모 모니터링단에 감사드린다"며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에 기여해 궁극적으로는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대덕구를 만드는데 힘써줄것"을 당부했다.

김태선기자

'X-FIRE' 게임으로 소방안전을

아산소방서, 지식을 보다 재미있고 쉽게 습득 위해

아산소방서(서장 김득곤)는 소방안전에 대한 지식을 보다 재미있고 쉽게 습득하기 위해 3D 재난 구조게임 'X-FIRE'를 무료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X-FIRE'는 게임 속 소방관이 각각의 스테이지를 주어진 재난 환경에 따라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을 구조, 응급처치 후 대피시켜 점수를 얻는 방식의 게임이다.

특히 화재 시 대처요령 및 소화기 사용법 등을 게임으로 학습해 실제 상황 발생 시 좀 더 효과적으로 대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방 안전 교육 게임이다. 현재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향후 애플 앱스토어에서도 체험 할 수 있도록 설치를 확대 할 계획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안전교육게임이 개발되어 있지만 홍보가 부족하여 잘 모르는 시민이 많다"며 "게임으로도 소방안전교육이 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대한민국 안전대상' 후보 공모

청양소방서, 우수 소방대상물 선정 및 포상 위해 모집

청양소방서(서장 류석윤)는 국민과 기업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를 고취와 우수 소방대상물 선정 및 포상을 위해 '제16회 대한민국 안전대상' 후보를 공개모집한다.

올해로 16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안전대상'은 국민과 기업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앞장선 기업과 단체, 개인을 발굴해 표창하는 상이다.

응모분야는 ▲우수기업상 6분야(서비스, 공공서비스, 에너지, 건설, 제조, 운수·창고·통신) ▲특별상 4분야(개인, 공무원, 단체, 제품) ▲안전문화 콘텐츠 등이다.

응모자격으로는 우수기업상의 경우 최근 2년간 소방방재 관련 피해발생이 없는 등 산업 재해율이 동종업 평균치 이하여야 하며, 특별상은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한 공로가 있거나 소방안전용품 또는 안전장치 등을 개발·보급에 우수한 실적이 있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로 두 번째 공모하는 안전문화 콘텐츠 분야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내용,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위한 아이디어 등을 주제로 개인 또는 3인 이내의 단체가 참여할 수 있다.

접수는 오는 6월 9일(콘텐츠 공모전은 7월 28일)까지이며, 한국안전인증원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고, 세부사항은 청양소방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청양=정상범기자

사람인 "취준생 4명 중 1명, 징크스 있다!"

징크스의 종류로 '첫 질문부터 막히면 불합격한다' 첫 질문 징크스 1위 꼽아

불길한 일의 징조를 의미하는 징크스를 취업 준비 과정에서도 느끼고 있다는 구직자들이 4명 중 1명으로 조사되었다.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www.saramin.co.kr, 이정근 대표)이 구직자 599명을 대상으로 취업 징크스에 대해 조사한 결과, 24.4%가 징크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 기간별로 살펴보면, '6개월 이상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구직자'(33.6%)가 취업 징크스를 가지고 있다는 답변이 '6개월 미만 구직자'(16.9%)보다 16.7% 높았다. 실제 취업 징크스가 생긴 시점도 구직 후 평균 6개월로 집계됐다.

구직자들은 1인당 평균 2.7개의 징크스를 가지고 있었다.

징크스의 종류로는 '첫 질문부터 막히면 불합격한다'는 ▲첫 질문 징크스(18.7%, 복수응답)를 1위로 꼽았다. 다음으로 '불합격 생각을 하면 정말 불합격한다'는 ▲생각 징크스(17.1%), '버스, 지하철 등을 놓치면 운이 안 좋다'는 ▲대중교통 징크스(11.7%)가 있었다. 이외로는 '이유 없이 물건 등을 떨어지거나 깨지면 안 좋다'는 ▲낙하 징크스(8.3%), '악몽을 꾸면 운이 안 좋다'는 ▲꿈 징크스(6.9%), '비, 눈 등 날씨에 따라 운이 안 좋다'는 ▲날씨 징크스(6.7%) 등으로 답했다.

그렇다면 구직자들은 취업 징크스가 합격여부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무려 95.9%가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으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은 '50%'(29.3%)를 꼽은 구직자들이 많았다. 계속해서 '20%'(12.1%), '30%'(10.7%), '40%'(10%) 등의 순으로 평균 48%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징크스를 가지고 있는 구직자들은 취업 실패에 대한 불안감도 상당한 편으로, 84.2%가 '불안감이 높다'고 응답했다.

사람인의 임민욱 팀장은 "경기불황이 지속되면서 구직기간이 길어지는 것에 대한 심리적인 불안감이 징크스 발생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며 "징크스에 얽매이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거나 의욕상실이 생길 수 있는 만큼 평소 긍정적인 생각으로 꾸준히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징크스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이정복기자

금곡초, 충남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입상

4월 과학의 달 맞이 실시한 대회… 두 팀이 참가 우수한 성적 거둬

금곡초등학교(교장 백순덕)에서는 지난 14일, 실시된 제39회 충청남도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에 두 팀이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이번 대회 자원재활용에 참가한 이수민(4학년 3반) 학생은 특상(금상)을 수상하였고, 생활과학Ⅱ에 참가한 이수아(5학년 3반)학생은 우수상(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얻었다.

4월 과학의 달을 맞이하여 실시된 이번 대회에 두 팀은 작년 겨울부터 발명에 대한 고민과 제작을 거듭하여 자원재활용 분야에서는 양복 케이스로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작품으로 변신시켰다. 생활과학Ⅱ에 참가한 이수아 학생은 시골 할머니댁에서 가을에 콩을 선별하는 모습을 보고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콩 선별기를 제작하였다.

두 팀 모두 수업 종료 후 학교에 남아 발명품 제작과 고민을 거듭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과학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었다. 두 팀을 지도한 교사 및 지원을 아끼지 않은 학교와 부모님의 사랑으로 위와 같은 입상의 영광이 있었다.

아산=리량주기자

희망을 심다! 대전시교육청 '희망학교&희망교실'

희망학교 27개교 · 희망교실 109개 학급 선정… 3억 3백만원 지원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교육취약학생 지원을 위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희망학교* 27개교, 희망교실* 109학급을 선정하고 3억3백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희망학교, 희망교실(각각 선정 및 공고, 운영)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교육취약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대전교육청은 비사업학교 251개교를 대상으로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3일까지 공모를 실시하고,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했다.

희망학교는 교육취약 학생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며, 희망교실로 선정된 학급에서는 담임교사가 학급 내 교육취약 학생의 멘토가 되는 사 · 제 멘토링 활동을 직접 수행하게 된다. 특히, 희망교실은 지난해 담임교사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게 되어 호응이 높았으며, 담임교사들의 높은 관심 속에 올해 114개 학급이 응모했고, 지난해 보다 37개 학급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대전교육청 임민수 교육정책과장은 "희망학교와 희망교실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교의 교육취약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학교현장에서 잘 운영되어지길 바란다"며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학교지원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충남교육청, 충남도 협력사업 '영양 · 식생활 교육교재 전면 개편'

지역사회에서 관심이 높은 내용으로 채워… 5월 중 발간할 예정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 소속 충남영양교육연구회(회장 홍정남)는 지난해까지 2년간 교육현장에서 활용하던 '영양 · 식생활 교육교재'를 최근 사회적 관심거리를 반영한 교재로 전면개편하기로 하고 초 · 중 학생들이 알기 쉽고 재밌게 학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 내용을 가다듬고 있다.

충남도청과의 교육협력사업으로 이뤄지는 이번 교재 개편에는 충남영양교사회 10여명이 지난 1월부터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 쌀의 중요성 ▲전통식문화교육 ▲식품 알레르기 ▲GMO(유전자조작) 농산물 이해 등 지역사회에서 관심이 높은 내용으로 채워 5월 중에 발간할 예정이다.

1장 '몸에 좋은 우리 쌀! 알고 먹어요'에서는 쌀 생산 전국 2위인 충남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벼의 일생, 쌀의 영양분, 줄어드는 쌀 소비에 어려운 농민의 현실 그리고 아침밥 먹기 중요성을 다룬다.

날로 서구화되는 식생활로 인해 발생하는 비만 등을 예방하고 오히려 해외에서 건강식품으로 각광받는 우리 전통식생활을 널리 알리기 위해 2장 '우리나라 전통음식이 좋아요!'에서는 전통음식의 특징과 우수성, 발효음식 알아보기, 전통장 만들기를 소개할 예정이다.

3장 '알레르기 식품!, 알고 먹어요'에서는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식품 알아보기, 식품 알레르기 증상 알아보기, 식품 알레르기 대처요령을 다룰 예정이다. 학교급식 현장에서 대두되고 있는 학생들의 알레르기 부작용에 대처하기 위해 학생 스스로 알레르기에 대해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는 영양교사들의 의견이 반영됐다. 전세계적으로 큰 유해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GMO식품에 대해 소개하는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4장 'GMO 식품! 바르게 알고 선택해요'에서는 GMO 식품이란 무엇인지, 식품 속의 GMO식품 찾아보기, 확인방법 등을 다룰 예정이다. GMO식품을 다루게 된 배경에는 김지철 충남교육감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있었다고 교재 제작 관계자는 밝혔다.

내포=전용식기자

세종시교육청,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 대표자 연합 연수

단위학교 자치 역량 강화 위한 학교별 대표자 연합 연수 개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25일 시교육청 대강당에서 학교운영위원장와 학부모회장 240여명을 대상으로 단위학교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학교별 대표자 연합 연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연수는 올해 학교현장에 새롭게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학교교육 발전을 위한 두 단체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학교 간 정보공유와 소통을 위하여 마련됐다.

특히, 구근회 오름교육연구소 소장을 초빙하여 '글로벌 리더로 키우는 5원칙'이라는 특강을 통해 자녀와 교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이시대의 부모의 역할과 글로벌 리더를 키우는 현명한 자녀 교육의 방향을 제시한다.

한편, 올해 구성된 세종시 각급학교 116개 학교운영위원회는 4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 1년 동안 학교회계 예산안, 교육과정 운영계획 등 학교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해서 심의 ·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학부모회와 함께 학교교육활동에 대하여 학부모와 학교,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제시하여 지원활동을 펼치게 된다.

또한 학부모회는 학교참여 지원활동으로 학교교육 모니터링, 자녀와 함께하는 체험활동, 자녀교육 역량강화 연수, 봉사 · 기부 활동 등 공동체로서의 다양한 역할을 함께 하게 된다.

최교진 교육감은 이날 인사말에서 참석자들에게 "학교와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봉사해 주신데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교육공동체가 하나 되어 우리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데 든든한 파수꾼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세종=이정복기자

아산교육지원청, 희망교사안전역량 강화 연수 실시

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준표)은 지난 21, 22일 이틀에 걸쳐 아산교육지원청 3층 대강당에서 아산관내 희망교사 45명을 대상으로 교사 안전역량강화 직무연수를 15시간에 걸쳐 실시했다.

이번 연수로 대한적십자에서 발급하는 안전요원 이수증을 받게 되며,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 시 안전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위급상황 시 활용될 수 있도록 정확한 동작과 대처법을 직접 몸으로 익힐 수 있는 실습위주의 내용이었다.

인명구조에 가장 필요한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 사용법에 대한 내용은 물론 상처나 골절, 화상을 입었을 시 응급처치방법, 수상 및 산악 안전교육에 대한 내용 등의 강의와 실습이 이뤄졌다.

이날 연수에 참석한 교사는 "오늘 익힌 응급대처법을 쓰는 일은 없어야겠지만 위급한 상황 시 생명을 살리는 5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응급처치를 통해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되새기며 실습에 최선을 다해 임했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청양교육지원청, 행복교육 실현 기초학력향상 지원 연수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조중철)은 24일 관내 초 · 중 · 고 교장단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미래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출발선이 평등한 행복교육실현 기초학력향상 지원 연수를 실시했다.

2017년 3월에 이루어진 기초학력 진단-보정을 위한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토대로 초 · 중학교별 기초학습 부진아의 원인별 분석과 이를 토대로 한 학교별 지도대책, 교육지원청의 지원계획을 공유했다.

이 연수에서 조중철 교육장은 학생이 학교에서 행복하고 미래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초학력이 튼튼해야 한다는데 역점을 두고 초 · 중 · 고 등학교의 기초학력 증진 계획 수립을 기획하고 컨설팅 했다.

청양교육지원청에서는 기초학력 증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기초학습 도우미 운영교 11교, 학습클리닉운영교 8교, 두드림 학교 운영교 4교, 중학교 학력증진 지원을 위한 야간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다.

각 학교는 운영결과 및 운영과정에서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기초학력증진과 학생의 행복 교육실현을 위한 정보를 나누었는데 이번 연수에서는 2016 두드림 학교 운영 우수교인 청양중학교 서용문 교장이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이의 확산방안에 대한 강연으로 박수를 받았다.

청양=정상범기자

aT, 농식품 산업 이끌어갈 미래 인재 육성 발 벗고 나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여인홍)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농식품 특성화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맞춤형 2개 과정을 개설하고 해당 교육비 전액을 무상 지원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올해 처음 실시한다.

그동안 aT는 농식품 특성화고 학생들이 농식품 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장래 진로를 설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특화된 교육과정과 우수 강사진으로 구성된 만족도 높은 맞춤교육을 실시해 왔으나, 학교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교육비가 부담이 됐던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난달 6일부터 약 2주간 지원 대상학교 신청 접수를 받아 청주농업고등학교,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 한국식품마이스터고등학교, 금산산업고등학교 4개교를 선정했다.

송병배기자

공주교육지원청 '아침밥 먹고 등교하기' 릴레이 캠페인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연주)은 결식하는 학생들의 건강한 식생활 습관 개선을 위해 24일 신관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영양교사들이 배치된 40개교 모두가 참여하여 '아침밥 먹고 등교하기' 릴레이 캠페인을 실시한다.

당진 조금초, 장애이해교육주간 운영 당진 조금초등학교(교장 박애림)는 제37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지난 17부터 21일까지 장애이해 교육 주간으로 정해 장애인의 날 행사를 실시했다.

태안 고남초, 세계 책의 날 운영 태안. 고남초(교장 박영순)가 4월 셋째 주를 기점으로 4월 독서행사 및 세계책의 날 행사를 운영한다. 학기 초 올바른 독서문화를 정착하고 책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며 즐겁게 독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진행됐다.

대천동대초, 2017학년도 과학축제한마당 지난 21일 과학축제한마당을 실시했다. 과학의 날을 맞이하여 실시한 이번 행사는 학부모 도우미와 교사가 진행하는 다채로운 과학 체험 프로그램에 전교생이 참여하여 과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동 정●●●

대기환경 개선 계획 회의

안희정 충남도지사= 25일 오전 10시 도지사 집무실에서 '화력발전소 주변 대기환경 개선 계획 회의' 참석.

4월 정례 브리핑 주재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 25일 오전 10시 시 교육청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4월 정례 브리핑을 주재.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고복1리 일사일촌 자매결연 협약 체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이용순)이 21일 오전 11시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고복1리 마을회관에서 일사일촌(一社一村)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세종특별자치시로의 이전과 정주 여건 조성을 마무리하면서 지역사회와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3월 충청남도 청양군 상장2리에 이어 두 번째로 자매결연을 맺었다.

향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지역주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미래 직업세계, 진로문제, 직업기초능력 등에 대해 이해와 공감을 높이기 위한 교류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한편 고복1리는 배, 복숭아, 포도 등의 지역특산물로 인기를 얻고 있어 자매결연을 계기로 우수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가 기대된다.

세종=김정환기자

충남도 4월 명사특강 27일 개최

충남도가 오는 27일 오전 10시 도청 대회의실에서 숲해설가 김용규 대표를 초청, '숲에게 좋은 삶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4월 명사특강을 개최한다.

김용규 대표는 벤처기업 CEO로 일하던 중 평소 자신이 동경하던 삶을 살고자 마흔 살에 고향인 충북 괴산으로 귀농, 산중에 직접 오두막을 짓고 농사짓고 글쓰고 강의하는 삶을 시작했다.

김 대표는 자신이 살고있는 숲을 사라진 여우가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는 뜻으로 '여우숲'이라 이름 짓고 그곳에 생태 체험학습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숲 인문학이라는 다소 생소한 인문학 강의를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는 숲해설가이자 숲 철학자인 김 대표의 주요 저서로는 '숲에게 길을 묻다', '숲에서 온 편지', '청산도 생태문화도감(공저)', '당신이 숲으로 와준다면' 등이 있다.

김 대표는 이번 특강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갖추고 있어야 할 마인드를 소개한다.

특히 사람들의 무한경쟁과는 달리 '상생'과 '성찰'로 대변되는 숲속 생명체 삶의 방식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는 시간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의 명사특강에는 누구나 참가가 가능하며, 강의와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충남넷 홈페이지(www.chungnam.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5월 명사특강은 다음달 18일 피부과 전문의 함익병 원장을 초청해 '피부와 건강이야기'라는 주제로 실시될 예정이다.

김정한 기자

"오존경보제 시행 문자알림 신청하세요"

충남도, 하절기인 5~9월까지 5개월간… 대중교통 이용 권장

충남도가 오존농도가 높아지는 하절기인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오존경보제를 시행한다.

오존은 자극성 및 산화력이 강한 기체로, 두통과 기침, 눈이 따끔거리는 현상을 유발하며, 심할 경우 폐 기능 저하나 피부암 유발 등 인체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오존경보는 대기 중 오존의 농도에 따라 △0.12ppm 이상이면 '주의보' △0.3ppm 이상이면 '경보' △0.5ppm 이상이면 '중대경보'가 발령된다.

주의보가 발령되면 호흡기환자나 노약자, 어린이 등은 실외활동을 가급적 자제해야 하고, 경보 시에는 노약자와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도민들은 실외활동이나 과격한 운동을 피해야 한다.

오존 중대경보 발령으로 대기오염을 긴급하게 줄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운행제한이나 사업장의 조업단축 등의 조치를 내리게 된다.

도는 천안 2곳과 아산 1곳, 서산 2곳, 당진 2곳 등 도내 7곳에 설치한 대기오염측정망을 통해 오존농도 등을 실시간 측정하고 있다.

오존 관련 경보 발령 시에는 언론을 통해 도민에게 신속하게 전파되며,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도 '미세먼지·오존 SMS 알림서비스'를 실시한다.

미세먼지·오존 SMS 알림서비스 수신을 희망하는 도민은 충남넷 홈페이지(www.chungnam.go.kr)나 도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www.chungnam.net/healthenvMain.do)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에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확대됨에 따라 오존경보제 시행을 전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오존 발생 주요 원인물질인 이산화질소와 유기화합물 저감을 위해서는 승용차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김정한 기자

부여 백제중, 상생을 꿈꾸는 장애 이해 현장

긍정적·바람직한 가치관 형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백제중학교(교장 천형우)는 지난 20일 제37회 장애인의 날을 전후로 하여 장애를 가진 학생들에 대해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가치관을 만들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백제중학교는 특수교육대상(중증 3명, 경증 4명)학생을 위한 통합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교육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넓히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상생할 수 있고 존중하는 태도를 익힐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조원의 특수교사의 계획에 의해 '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영상물 시청', '시청 소감문 발표'를 통해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틀을 다졌다. 또한 '장애인 친구와 함께 만드는 케이크', '휠체어 체험', '10분 시각장애인 되어 보기', '장애인의 날 기념 교내 퀴즈 대회', '장애인 친구에게 사랑의 편지 쓰기' 등의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 등을 활용하여 안대를 쓰고 흰 지팡이에 의지하여 복도와 계단을 오르내리며 시각장애인이 갖는 불편함을 체험했고, 휠체어를 직접 끌면서 작은 턱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힘든지를 경험하였다. 장애인 친구와 케이크를 만들며 함께 하면 더욱 더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도 가졌다. 학생들은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 다름을 인정할 수 있었으며 장애학생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없애고 친근감을 가질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백제중학교는 특수학급이 있어 평소에도 학생들에게 '차별이 아닌 다름! 다름을 넘어서 상생으로!'란 목표를 가지고 장애이해교육을 활발하게 전개시키고 있다. 특수학생의 친구가 되어주는 도우미 학생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으며 EBS 지식채널을 포함한 여러 동영상을 각 교과에 맞는 시간에 보여주어 융합형 장애이해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는 특수학급 소속 김재준 학생을 위해 학생과 교직원들이 정성껏 모은 사랑의 저금통을 전달하기도 했다.

'사랑의 케이크 만들기' 체험에 참여한 2학년 김유정(여) 학생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체험활동을 통해 장애친구들이 무엇을 원하는 지 잘 알 수 있었다. 그들의 마음을 읽으며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다."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직원들 사기 진작·근무의욕 향상

행복청, 우수 부서·직원에 행복창조대상 시상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 이하 행복청)은 24일 업무 성과가 우수한 부서와 직원에게 '행복창조대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행복창조대상은 행복청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해 청이 개청한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자체 포상제도이다.

2017년도 1분기 수상자로는 1개 부서(공공시설건축과), 사무관 1명(녹색에너지환경과 조인하), 주무관 3명(운영지원과 문병협, 기획재정담당관실 이준용, 도시정책과 권현미)을 선정하였다.

선정은 각 실·국·단에서 추천한 부서와 직원을 대상으로 1분기 업무 추진실적, 조직 기여도, 공직자로서의 자세 등을 종합 평가하여 선정했으며,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공공시설건축과는 주민복합공동시설(복합커뮤니티센터)를 성공적으로 준공하는 등 공공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였고, 아트센터 설계에 심혈을 기울여 행복도시 내 문화시설 구축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이 외에도 해당 부서는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 및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발굴하여 시행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참고로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복합커뮤니티센터 이용객 206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2016년 7월)에 따르면, 60% 이상의 만족도와 5% 미만의 불만족도를 보여주고 있다.

사업 부서에서는 ▲녹색에너지환경과 조인하 사무관이 국토연구원·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 등과 협력하여 행복도시 합강리(5-1생활권) 제로에너지타운 기본구상안을 수립, 발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도시정책과 권현미 주무관은 유아숲체험원 조성, 주민참여 자문단 구성·운영, 새롬동(2-2생활권) 공동주택 등 정주환경 수준을 높여 차질 없이 입주가 가능하도록 지원한 점 등을 높게 평가받았다.

지원 부서에서는 ▲운영지원과 문병협 주무관이 인사·채용 부문에서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로 조직에 활력을 부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기획재정담당관실 이준용 주무관은 행복도시 건설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2018년 예산편성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재정적으로 뒷받침했다는 평가를 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충재 행복청장은 "성실하고 창의적으로 노력해 온 부서와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한다"면서, 직원 모두에게 "앞으로도 행복도시만의 특별한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 꾸준한 노력과 세밀한 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세종=이정복기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단속

충남도가 다음달 19일까지 도내 전역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에 대한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에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했을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지만, 비장애인 차량이나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은 보호자 차량에 의한 위반이 여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 단속은 도와 시·군, 보건복지부,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등과 함께 민·관 합동으로 실시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주차 위반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공원, 지자체청사 등 공공기관, 도서관, 공연장·전시장의 문화시설 등 도내 179곳이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뿐만 아니라 '주차가능' 표지 위·변조, 표지 양도·대여 등 부당 사용, 주차방해 행위 등도 단속한다.

단속 결과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 원을, 주차표지의 부당사용 시 과태료 200만 원을, 주차 방해 행위 시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는 공간"이라며 "장애인 이용 편의를 보장하는 올바른 주차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운전자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집중호우 시 저수지 비상대처 훈련 실시

홍성군 재난안전대응 역량 강화

홍성군은 여름철 집중호우 등 풍수해로 인한 재난재해에 대비해 수리시설(저수지) 비상대처 훈련을 지난 21일 실시했다.

은하면 장곡리 월곡마을 장곡저수지에서 실시한 이번 훈련은 여름철 태풍 북상에 따른 200㎜이상의 집중호우로 인해, 저수지의 물넘이 배제능력을 초과하는 홍수로 저수지 제당 유실 및 하류사면 일부가 붕괴되는 상황을 가상으로 설정해 실시됐다.

이날 실시된 훈련은 주의단계와 경계단계, 심각단계, 종료단계 등 단계별로 나눠 진행된 가운데, 주민의 신속한 대피와 응급복구반, 긴급동원업체 투입 등을 유기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집중했다.

홍성군 건설교통과장은 강평을 통해 "지역 유관기관과의 신속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재난안전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 맞춤형 재난 매뉴얼을 숙지·이행함으로써 지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훈련은 홍성소방서와 긴급복구 동원업체, 지역주민 등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됐다.

홍성=전용식기자

예산군 보건소, 2016 지역사회건강조사 통계 결과 발표

지역단위 보건정책 수립

예산군 보건소는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을 파악하고 지역단위 보건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얻기 위해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한 2016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4일 보건소에 따르면 건강행태 부문에서 현재 흡연율 17%, 남성흡연율 32.4%, 월간 음주율 44.5%, 고위험 음주율 20%로 충남 평균 대비 낮게 나타났고 걷기 실천율(최근 일주일 동안 걷기를 1일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실천한 사람)은 21.4%로 충남 38.3%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며 비만율은 33%로 충남 평균 28.8%에 비해 높게 조사됐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이 씹는데 불편함을 느끼는 저작불편 호소율은 49.1%로 충남 평균 47.3%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스트레스 인지율은 25.6%로 충남 27.6%에 비해 낮게 조사됐으며 우울감 경험률은 7%로 충남 6.9%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최근 2년간 건강검진 수진율 70.7%, 암 검진율 61.3%로 충남대비 높게 조사됐다.

이밖에 3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평생 의사진단 경험률은 31.2%, 약물치료율은 96.6%로 충남 대비 11.1%, 75.4%보다 비교적 높게 조사됐다.

보건소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보건사업은 비만율 증가와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걷기실천율 등 신체활동 증가와 관련된 사업으로 파악했다.

올해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오는 8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문의는 보건소 건강증진팀(339-8051)으로 문의하면 된다.

예산=양성업기자

제44회 매헌윤봉길평화축제

예산군, 오는 29일부터 2일간… 불꽃청년 그를 만나다

매헌 윤봉길 의사의 4·29 상해 의거를 기리고 나라사랑 애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제44회 매헌윤봉길평화축제'가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2일간 덕산면 충의사와 도중도 일원에서 개최된다.

24일 군에 따르면 (사)매헌윤봉길월진회(회장 이우재)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불꽃청년 그를 만나다'라는 슬로건 아래 윤봉길 의사와 평화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독립운동가 인물형 관광축제로서 축제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보완 및 강화하고 관광객과 보행자 중심으로 행사장을 구성하는 등 편의시설이 보강됐다.

또한 축제 1일 차에는 의거 기념식을 비롯해 윤 의사의 정신과 업적을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2일 차에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읍·면 대항 민속경기, 지역 문화예술공연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 일정을 살펴보면 의거일인 오는 29일에는 오전 9시 40분부터 온천사거리에서 출발해 도중도 무대에 도착하는 '윤 의사 영정 모시기'를 시작으로 ▲사물놀이 등 식전행사 ▲4·29 상해 의거 85주년 기념식 ▲매헌음악제 ▲의거 퍼포먼스 '불꽃청년 윤봉길' ▲동북아 평화음악제 ▲평화토크 콘서트 등이 진행된다.

또한 오는 30일에는 ▲보부상 난전놀이 ▲윤봉길 청소년단 교원 동아리 주관 초·중·고 문답대회 ▲예산청년회의소 주관 글짓기 및 그리기 대회 ▲잠뱅이 씨름대회 및 읍·면 대항 민속경기대회 ▲주민자치 발표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

아울러 행사 기간 동안 평화의 길 걷기, 도시락 만들기, 전통 연날리기, 44인 독립 운동가, 윤봉길 주제관 등 다양한 체험 및 전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군 관계자는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인 윤봉길 의사의 업적과 정신을 널리 알리고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축제를 준비했으니 많은 분들이 가족과 친구 등과 함께 오셔서 즐거운 축제를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예산=양성업기자

동정

체전 준비사항 보고회

복기왕 아산시장=25일 오후 4시 시청 상황실에서 열리는 체전 준비사항 보고회에 참석.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김홍장 당진시장=25일 오후 1시 시청 대강당에서 열리는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에 참석.

4월중 의원출무일

이종윤 당진시의장= 25일 오전 10시 당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4월중 의원출무일에 참석.

중간보고회

한상기 태안군수 = 25일 오후 3시 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충청 유교문화권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에 참석.

게이트볼대회 환영연

이석화 청양군수 = 25일 오후 5시 30분 청양읍 라온웨딩홀에서 열리는 대통령기 전국생활체육 게이트볼대회 환영연에 참석.

교육재정 설명회

조중철 청양교육장=25일 오후 2시 청양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2017년 교육재정 설명회를 주관.

온양6동 물 마시기 나눔 캠페인 실시

아산시 온양6동 바르게살기위원회(위원장 설종화)는 4월 21일 온양초등학교에서 물마시기 물 나눔 캠페인을 실시했다.

소중한 물 한잔이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자는 의미에서 실시한 이번 캠페인을 통해 온양초등학교의 소풍과 체육대회를 맞아 학생들에게 줄 물 500개를 학교 측에 기증했다.

설종화 온양6동 바르게살기위원장은 "물마시기 물 나눔 캠페인을 통해 쓰는 물은 아끼고 마실 때는 아낌없이 마시자."며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물의 소중함을 일깨우고자 지속적인 활동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완겸 온양6동장은 "어린이들이 물의 소중함을 느끼고 건강도 지키며 물을 아끼는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꾸준한 나눔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온양6동 바르게살기위원회의 지역사회공헌 활동에 감사한다."며 앞으로의 활동에도 높은 기대감을 보였다.

아산=리량주기자

태안군 10년 미래 관광정책 추진

제2차 태안군 관광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 열려

서해안의 대표 관광휴양도시 태안군(군수 한상기)이 미래 1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적 종합 관광개발 계획 수립을 통해 차별화된 관광정책을 추진한다.

군은 지난 24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한상기 군수와 김현표 부군수, 관련 부서장, 용역업체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태안군 관광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착수보고회는 지난 2004년 수립된 제1차 태안군 관광개발 기본계획을 보완 · 발전시켜 국내 · 외 관광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보다 새로운 관광개발 비전과 목표 및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군은 향후 10년을 아우르는 관광분야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태안만이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을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관광발전 기반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급변하는 환경 변화와 관광형태에 대응해 궁극적으로 '희망찬 태안, 행복한 군민'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관광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여건분석과 설문조사, 사례분석, SWOT분석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말 최종 마무리되며, 군은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적극적인 관광발전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상기 군수는 "태안군은 30개의 해수욕장과 수목원, 신두사구 등 차별화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앞으로의 관광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미래를 내다보는 관광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해 태안군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당부했다.

태안=김정한기자

청양군 민원후견인 활성화로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견인

청양군(군수 이석화)이 민원 1회 방문 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민원후견인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에 나섰다.

민원후견인 제도란 민원 처리에 경험이 많은 소속 직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해 민원인을 안내하거나 상담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군은 올해 민원사무 처리에 경험이 많은 6급 팀장 이상 또는 7급 이상 기술직 공무원 36명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했다.

지정된 민원후견인은 각종 고충민원, 복합민원, 인?허가 관련 민원 상담 시 후견인 지정을 요청하면 지정된 후견인이 신청서 작성부터 중간처리과정 안내, 처리결과 통보까지 1회 방문만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민원후견인제를 이용한 주민들은 "젊은 사람도 작성하기 어려운 민원서식을 도와주고 한 명이 처리과정과 결과까지 안내해 주니 참 편리하다"고 호응을 보였다.

이석화 군수는 이들 민원후견인들에게 "적극적인 자세와 친절마인드로 민원후견이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를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온양3동 주민과 함께 나눔터 바자회 성료

아산시 온양3동 행복키움추진단(단장 홍언순)은 지난 21일, 아산시외버스터미널웨딩홀 1층 주차장에서 40여명의 추진단원 및 자원봉사자 등이 참여해 후원받은 물품을 갖고 제5회 행복키움 나눔터 바자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행복키움추진단 회원과 롯데마트 아산터미널점, 아산시외버스터미널 복합시설관리 센터, 아산웨딩홀, 세흥상사, 정문농산, 아산시사회적기업협의회, 굴다리식품, 부흥한복, 이현상, 아산시보건소 등의 후원과 각 단체회원 및 지역 주민들의 자원봉사를 통해 진행됐다.

특히, 충무봉사단에서 음식 자원봉사, 아산시 사회적기업협의회에서 출입구 풍선 아치장식과 음향지원 봉사, 음봉면 행복키움추진단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된장판매, 아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생활이 어려운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음식판매 등 여느 해보다 풍성하고 다양하게 참여하여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에 참여한 권곡동 A씨는 "다양한 물품들과 음식들이 풍성해 발길을 돌리기가 어렵다."며,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어 너무 행복하고, 특별히 베트남에서 만든 음식을 맛볼 수 있어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홍언순 단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후원해 주신 롯데마트 아산터미널점, 아산시외버스터미널 복합시설관리 센터, 아산터미널 웨딩홀, 기타 여러 후원업체 및 개인적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과 행복키움추진단, 자원봉사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웃이 이웃을 돌볼 수 있는 나눔 문화를 더욱 확산시켜, 주민들이 봉사를 실천하고 사랑을 나누어 어려운 이웃들과 더불어 사는 동네복지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행복키움 관계자는 "이번 행사에서는 의류, 아동용품, 장난감, 도서, 주방용품, 꽃, 떡, 음식, 각종 생활용품 등 다양한 물품을 후원받아 판매하여 700여만원의 수익금을 올렸고, 이 기금은 온양3동의 생활이 어려운 가정,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과 보훈대상자 위안잔치, 생활이 어려운 초등학생 여름캠프, 행복키움장학금 전달식 등 다방면으로 행복키움추진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태안군 '팜파티' 농촌의 新 관광 모델로 부상

지역 관광자원 토대 위에 지역 농가의 독창적 스토리 결합

꽃과 바다의 도시, 태안군이 관광자원의 토대 위에 지역 농가의 독창적 스토리를 결합한 '팜파티'가 농촌체험형 관광 수익 모델로 급부상하고 있다.

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지난 22일 이원면의 한 농장에서는 농업인과 도시 소비자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한데 어울려 대형 비빔밥 만들기를 체험하는 특별한 팜파티가 열렸다.

'팜파티'는 농장을 의미하는 팜(Farm)과 파티(Party)를 합친 말로, 농장주가 소비자를 초청해 농촌문화와 농산물을 주제로 다양한 먹을거리, 공연, 체험, 농산물 정보 제공 및 판매 등을 실시하는 행사다.

이번 팜파티는 군이 추진하는 강소농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자율실천 학습 모임 '농부들의 반란'에서 주최한 행사로, 지난해 결성된 '농부들의 반란'은 전국 농촌 자율모임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역 농업인들은 각 농장별 주요 고객들을 초청해 직접 생산한 신선한 재료로 대형 비빔밥 만들기 경진을 펼치며 농가와 고객이 한데 어우러지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특히, 지역 농가들이 직접 만든 열무김치를 비롯, 수제포도식초를 곁들인 야채샐러드, 허브스콘, 송고버섯, 액상 생각차 등을 시식하는 코너를 마련하고 각종 디저트와 건강차, 장아찌, 천연양념 등을 판매하기도 하는 등 농촌체험형 관광 수익의 신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군은 이러한 팜파티가 도시의 소비자에게는 농산물이 생산되는 과정과 생산 환경에 대한 직 · 간접적 경험을, 농가에게는 농장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선보이는 홍보 효과를 제공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농촌체험형 관광 수익 모델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팜파티는 도시 소비자와 지역 농업인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향후 지속가능한 도농교류로 이어질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도시민들에게 태안군의 우수한 농촌체험 프로그램과 농 · 특산물을 널리 알려 농업인들의 새로운 소득원 발굴과 농촌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정한기자

우/리/동/네

드론 열기로 뜨거운 당진

도내 최초 드론 교육에 농업인들 관심 높아

당진시가 올해 충남도내 처음으로 선보인 드론(무인 비행장치) 교육에 지역 농업인들의 반응이 뜨겁다.

시에 따르면 세한대학교 항공학부와 손잡고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1일까지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4시간씩 드론 교육을 진행했는데, 뜨거운 열기 속에 마친 이 교육의 정원 30명 중 20명 이상이 농업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농업인들의 관심을 반영해 교육에서는 이론교육과 시뮬레이션 이후 기초교육인 정지비행과 수동 비행, 자율비행 등의 기초교육과 자동비행과 방제 실습 등으로 구성된 심화교육을 진행해 교육효과를 높였다.

특히 세한대학교에서 자체 구입한 드론 비행 연습 프로그램인 시뮬레이터를 모니터 상에서 조작하는 고난도 과정인 시뮬레이션을 통과해야만 기초 교육 과정인 연습용 드론을 직접 조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심화교육의 방제 실습도 야외 운동장에서 농업용 드론을 조작해 직접 농약을 살포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시는 1기 드론 교육 인기에 힘입어 2기 교육을 오는 5월 11일부터 26일까지 3주 간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진행할 계획으로, 2기 교육생은 이달 28일까지 세한대학교에서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2기 교육생도 교통 분야의 3농 혁신 실천과 농촌 일손 및 비용 절감을 위해 농업인을 우선적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당진=최근수기자

청양마늘 안정생산 위한 요령 당부

청양군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관내 재배면적이 점차 늘고 있는 특화작목 청양마늘의 안정생산을 위해 유의할 점을 당부하고 지도에 나섰다.

기온이 올라가면 마늘 병해 발생이 증가하는데 특히, 청양지역 예찰결과 춘부병 발생포장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방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흑색썩음균핵병과, 선충, 뿌리응애, 고자리파리 등도 방제에 신경써야한다.

5~6월은 마늘구가 굵어지는 시기로 영양분 흡수가 많아지는데 토양이 건조하면 양분흡수가 저해되어 생육이 저하되므로 자연 강수량을 고려해 이동식 스프링클러 등을 이용, 10일 간격으로 2~3회 물대기를 해줘야한다.

다만, 수분이 지나치게 많으면 마늘 병해 발생이 증가하므로 배수로 정비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또 마늘종이 올라오는 시기는 마늘 구가 비대하는 시기와 일치하는데, 마늘종은 가능한 빨리 제거(발생 20일 이내) 해야 마늘 구가 커지고 수확량이 증가한다. 마늘종은 뽑지 말고 절단용 도구를 이용해 잘라주는 것이 병해발생 감소나 수량증가, 노력절감 측면에서 유리하다.

청양=정상범기자

당진시민들의 건강지표 개선됐다

당진시 보건소, 지난해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발표

당진시 보건소는 지난해 실시한 지역사회 건강조사(이하 건강조사) 결과 흡연율과 정신건강 수준, 질병예방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에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6년 건강조사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당진 관내 19세 이상 성인 903명을 대상으로, 조사원 5명이 표본가구를 방문해 1:1 면접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흡연율은 2015년보다 1.5%p 감소한 23.7%로 조사됐는데, 특히 남자 흡연율의 경우 42.2%로 전년보다 5.2%p 이상 감소했다.

또한 정신건강 수준을 나타내는 스트레스 인지율은 29%로,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으며, 우울감 경험률은 5%로 2015년 대비 2.1%p 낮아졌다.

질병예방 수준에 대한 조사에서는 고혈압 평생 의사진단 경험률이 16%, 연간 인플루엔자 접종률은 44.2%, 건강검진 수진율은 61.9%, 암 검진율은 44.2%로 모든 지표에서 크게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신체활동 부분에서는 중증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이 23.6%로 2015년보다 상승한 반면, 걷기 실천율은 23.4%로 2015년 대비 9.8%p 하락해 희비가 엇갈렸다.

시 보건소는 금연율 감소의 영향으로 담뱃값 인상 외에도 야간 금연클리닉 운영 등 적극적인 금연지원 활동도 크게 미친 것으로 보고 올해도 야간 금연클리닉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관리가 필요한 열위 지표로 걷기 실천율을 선정해 시민들의 걷기 실천율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당진=최근수기자

우/리/동/네

민 · 관 · 군 재난 거버넌스 구축 나서

부여군, 15개 유관기관 · 민간단체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부여군(군수 이용우)은 지난 21일 군청 재난상황실에서 15개 기관 · 단체가 참여한 '재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민 · 관 · 군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재난의 대형화, 복잡화에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민간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됐다.

이를 통해 신속한 재난대응 및 응급복구를 위한 협업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유기적인 공조체계, 정보공유, 역할분담에 대해 실질적이면서 효과적인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먼저 군은 최근 10년간 부여지역 기후변화 및 재난발생 현황을 분석하여 향후 분야별 대응방안을 제안하고, 재난 및 대응에 관한 종적, 횡적정보의 신속 · 정확한 전달체계 구축방안을 설명했다.

현재 군은 부여경찰서, 부여소방서, 부여교육지원청, 제8361부대 3대대, 한국전력공사 부여지사, KT부여지점 등 15개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있다.

군에서는 2017년 재난 거버넌스 체계 고도화를 목표로 지난 5일 군청 내 부서별 실무자 교육을 추진했으며, 이날 간담회는 대외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용우 부여군수는 "2017년 재난관리 평가에서 부여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역량을 바탕으로 향후 민 · 관 · 군의 거버넌스 협업체계 고도화를 통해 부여지역의 재난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여=이정복기자

동부바이오 일반산업단지 본격 시동

천안시, 새로운 파트너 확보 · 산업용지 공백기 해소 기대

천안시 동남권 지역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동부바이오일 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천안시와 대원산업개발㈜, GS건설㈜, 교보증권은 24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천안 동부바이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민간개발방식으로 추진 중인 동부바이오 산단은 지난 2015년 산업단지계획 승인 후 사업시행자인 대원산업개발㈜의 자금 확보 어려움으로 그동안 답보상태였으나, 최근 건설사 GS건설㈜와 금융사 교보증권이 새로운 사업 파트너로 참여 의사를 밝힘에 따라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업무협약에 따라 시는 관련 법률에 의거 인 · 허가 처리, 기업유치, 기업애로 해소 등 행정지원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협약사는 금융조달, 보상, 조성공사 등 사업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동부바이오 산단은 천안시 동남구 동면 송연리 일원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면적 334,108㎡에 산업시설용지 228,730㎡, 지원시설용지 2,588㎡, 공공시설용지 102,790㎡ 등으로 조성된다.

2019년까지 총 사업비 869억원(국비포함)을 투입해 부지조성, 진입도로 및 용수공급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천안=김정환기자

논산딸기축제 '세계로' 가능성 봤다

올해 논산딸기축제 평가보고회… 문화체육관광부 축제 지정 위한 도약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24일 시청 회의실에서 지난 4월 5일부터 9일까지 개최한 2017 논산딸기축제 평가보고회를 갖고 내년에는 더욱 완벽한 국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할 것을 다짐하며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축제추진위원회 임원, 자문위원, 관계공무원등 50여명이 참석한 이날 보고회는 논산딸기축제 동영상 시청, 축제 총평에 이어 부문 · 행사별 평가 보고와 축제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발전방안 논의시간으로 진행됐다.

올해 딸기축제는 주한 파나마 대사를 비롯한 6개국의 주한 외교사절단 등이 대거 방문해 대한민국 대표 딸기축제라는 이미지를 널리 알리면서 명실상부한 국제적 축제로서 가능성을 확인했다

건양대 지진호 자문위원은 "논산딸기축제가 딸기산업발전을 이끌어갈 중심축이되는 축제였다"며, "축제전문 세미나 개최를 통해 논산딸기만이 갖는 독창성 있는 축제 슬로건 개발 등 타 축제에서 볼 수 없는 특별한 발전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축제 개선사항 토의시간에는 매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주차공간 확보방안, 우천 시 대책, 축제 공간 배치, 향토음식점 개선 등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됐다.

이부석 축제추진위원장은 "축제 첫째날 다소 궂은 날씨에도 시민사회의 합심으로 이뤄낸 성공적인 축제였으며, 앞으로 논산 딸기산업의 발전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성목 부시장은 "도출된 문제점을 좋은 축제로 나아가는 밑거름으로 삼아 문화체육관광부 축제 지정은 물론,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규모있고 내실있는 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4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동안 논산천둔치와 딸기밭 일원에서 펼쳐진 2017 논산딸기축제는 전국에서 62만여명의 관람객이 찾았으며 245억여원의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거뒀다.

계룡시 제69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 대진 추첨 열려

지난 21일 종목별 대진추첨…시 · 군 체육관계자들 이목 집중

충남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오는 6월 15일부터 4일간 개최되는 제69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를 50여일 앞두고 시 · 군 체육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시는 지난 21일 계룡 시민체육관에서 시?군 체육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9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 경기종목별 대진추첨이 열렸다고 밝혔다.

또 이날 19개 정식 종목 대진 추첨과 함께 시군 대표자 회의를 개최해 대회 전반을 점검했다.

제69회 충남도민체육대회는 계룡시에서 도내 15개 시 · 군 7000여 명의 선수단이 육상 · 수영 · 축구 · 테니스 · 탁구 등 19개 정식 종목과 일반부 씨름, 초등부 테니스 등 2개의 시범종목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치게 된다.

대진 추첨은 앞으로 있을 본 대회의 전초전으로, 대진결과가 나오면서 체전 열기가 더욱 확산되고 있으며 선수단 관계자들은 상대팀 전력탐색에 나서는 등 벌써부터 보이지 않는 경쟁에 들어갔다.

최홍묵 시장은 "시 · 군간 우열을 가리는데 앞서 선수들간 선의의 경쟁과 정정당당한 스포츠 정신으로 충남인의 긍지와 화합을 다지는 소중한 계기마련을 위해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진 추첨 결과는 제69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 홈페이지(www.cn2017.kr) 및 계룡시 홈페이지(www.gyeryo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계룡시는 지난 2003년 시로 승격된 이후 최초로 열리는 도민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시민들 역량 결집과 완벽한 개최 준비로 대내 · 외에 계룡시 위상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부여군시설관리공단-대한노인회부여군지회 업무협약 체결

정림사지박물관 · 백제관 등 사업장에 관내 어르신 취업지원

부여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양태)은 지난 23일 청소년수련원 회의실에서 노인공익활동 지원을 통한 참여와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대한노인회부여군지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MOU)에서는 노인 직업능력 강화 및 재취업의 기회를 촉진하고,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대한노인회 부여군지회에서 운영하는 각종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식과 정보를 교류하여 더욱 발전된 고객서비스와 지역공동체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노인 공익활동 기간은 매년 3월 ~ 11월까지이며, 부여군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각 사업장인 정림사지박물관, 백제관, 백제왕릉원, 송국리유적자료관, 서동요세트장 등에 관내 어르신의 일자리를 지원하여 사회적 책임과 안정적인 재취업의 기회 제공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양태 이사장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노인일자리, 노인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자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관계를 구축했다"며 "앞으로 관내 노인대학과 지역 읍 · 면 노인회관등 건강 · 건강증진 행태개선 등 건강관련 강연을 실시, 노인어르신의 건강관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봉사의 지를 밝혔다.

부여군시설관리공단은 전 직원이 참여하여 매년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재능기부, 자연정화활동, 사랑의 연탄 나눔, 연말기부행사 등 지역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여 지방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부여=이정복기자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기관' 선정

서천군, 인센티브 4000만원 확보

서천군(군수 노박래)이 행정자치부가 실시한 '2017년 1분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인센티브 4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동종 자치단체별로 예산집행실적, 민간실집행실적, 재정규모 등 3개 항목으로 평가를 실시, 군 단위는 82개 군 중 16개 지자체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군은 올해 1분기 목표액 1344억원 가운데 809억원을 집행함으로써 전년대비 2.82% 상승한 60.19%를 달성했다.

특히, 군은 올해부터 부서장 직무성과 평가항목에 신속집행을 추가하고, 연초부터 신속집행 점검회의를 수시로 개최하는 등 부진부서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해 집행률을 높임으로써 좋은 성과를 거뒀다.

한편, 군은 조기집행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2015년 인센티브 7천만원, 2016년 인센티브 8천만원을 확보한 바 있다.

서천=김태선기자

서천군 올 해 첫 메가 시티투어로 대규모 관광객 유치

국립철도고 총동문 600여 명 추억으로 떠나는 장항선 봄꽃열차탑승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22일 국립철도고 총동문회 회원 6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천 관광지 곳곳을 둘러보는 올해 첫 메가 시티투어를 운영했다.

메가 시티투어란 서천군이 운영하는 시티투어 프로그램의 하나로 상시 운영하는 문화코스, 힐링코스, 광역시티투어와는 별도로 대규모 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맞춤형 시티투어 프로그램으로, 대규모 관광객의 기호에 맞게 투어코스를 운영한다.

이번 메가시티투어에 참여한 국립철도고 총동문회 회원 600여 명은 새봄을 맞아 동문들의 화합과 친목을 다지기 위해 기차로 장항역까지 와서 서천군의 주요 관광지와 특화시장 등을 둘러보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날 이들을 장항역에서 직접 맞이한 노박래 서천군수는 "따뜻한 봄날, 서천에서 좋은 추억을 만들어 가시기 바란다"는 환영의 인사를 전했다.

한편, 서천군은 지난 2014년부터 시티투어를 운영하면서 2015년 4,334명의 시티투어 관광객을 유치한데 이어 2016년에는 시티투어를 운영하는 전국 시군단위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시티투어 탑승객 1만명을 돌파하는 성과를 거둬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부문 해양수산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올해 시티투어 관광객 12,000명 유치를 목표로 시티투어 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서천군은 상시 운영하는 시티투어와 더불어 서천군의 주요 축제 시기에 맞춘 메가 시티투어 운영으로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 정

역량강화 워크숍 만찬

구본영 천안시장= 25일 오후 6시 30분 상록리조트에서 열리는 천안시 정책기획 역량강화 워크숍 만찬에 참석.

시상식

황명선 논산시장= 25일 오전 11시 30분 상황실에서 개최되는 제3회 황산벌 청년문학상 시상식에 참석.

생활체육대회 준비위원회

노박래 서천군수= 25일 오전 8시 30분 상황실에서 열리는 제297회 서천군 조례규칙심의회에 참석, 오전 11시 회의실에서 열리는 충남도민 생활체육대회 준비위원회에 참석.

장학금 수여식

이용우 부여군수= 25일 오후2시 부여군 여성문화회관 3층에서 열리는 굿뜨래 장학금 수여식에 참석.

계룡시 '도시민 텃밭가꾸기' 교육 호응

농기센터건강한 여가생활 계기 마련

충남 계룡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는 21일 기술센터에서 계룡시민을 대상으로 '텃밭 가꾸기' 교육을 가졌다.

텃밭 가꾸기 교육은 전원생활, 주말농장 등 도시농업에 관심이 많은 시민들에게 텃밭 공간을 활용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영농 초보자들에게는 다소 생소하고 어려운 농업 관련 용어를 쉽게 설명하고 텃밭 가꾸기의 설계부터 파종과 수확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상세한 교육으로 진행됐다.

시는 이날 교육을 통해 도시민이 농업의 소중함과 재배과정에서 새로운 즐거움을 느끼고 농업인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것은 물론 지역 농산물의 소비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술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시농업 확산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정을 발굴하여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회 가격으로 최대한 많이 게재해 드리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전투데이만의 노하우…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동정

공주시 청렴모니터 위촉식

오시덕 공주시장= 25일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제2기 공주시 청렴모니터 위촉식에 참석하고, 오후 4시 2017 공주 석장리구석기축제 현장점검을 실시.

제37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김동일 보령시장 = 25일 오전 11시 대천체육관에서 열리는 제37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오후 4시 30분 보령문화의전당에서 열리는 부처님 오신날 봉축행사 참석.

양성평등위원회 위원 위촉

이완섭 서산시장= 25일 오전 9시 10분 동서산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열리는 서산발전협의회 농촌봉사활동에 참석, 오전 10시 45분 진충사에서 열리는 제향식에 참석, 오후 2시 10분 시장실에서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을 위촉.

방과후학교 활성화 방안 토론회

이연주 공주교육장= 25일 오전 10시 청내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방과후학교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 참석.

부처님 오신 날 봉축행사

조민행 보령교육장= 25일 오후 4시 30분부터 보령문화의 전당에서 개최되는 부처님 오신 날 봉축행사에 참석.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서산시 중앙로 가로정비 사업 전국적 모델로 '각광'

보행안전 · 도시 미관 개선 효과

서산시가 추진했던 중앙로 가로정비 사업이 전국의 벤치마킹 우수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서산시는 24일 김대순 부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12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안성시 방문단 일행들이 서산시를 다녀갔다고 밝혔다.

안성시는 농촌중심지 활성사업의 일환으로 조성 중인 '6070 거리' 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서산시를 방문했다.

시는 아름답고 쾌적한 명품거리를 만들기 위해 보행환경과 낡고 오래된 간판을 개선하는 중앙로 가로정비 사업을 실시했다.

이를 위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21억원을 들여 4개 노선의 도로 1,790m를 정비하고 전봇대와 통신주를 철거하는 대신 전선과 통신선을 지하에 매설했다.

또 6억 6,000만원을 들여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호 광장에서 삼일상가사거리까지 170개 점포의 212개의 간판을 교체했다.

이날 안성시 방문단 일행들은 깔끔하게 단장된 중앙로 거리를 둘러보며 시 관계자로부터 사업추진 현황을 청취했다.

이들은 보행안전과 도시 미관 개선의 효과를 거둔 것은 물론 유동인구 증가로 인한 지역 상권의 활성화에도 큰 보탬이 된 것에 깊은 관심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중앙로 가로정비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서산시를 향한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 조성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산=김정한기자

보령시 29일부터 봄 여행 주간 운영

익스트림 · 힐링 등 다양한 테마 주제 특별한 여행 선사

보령시가 봄여행주간을 맞아 오는 29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익스트림과 힐링 등 다양한 테마를 주제로 주요 관광지를 선보이며 볼거리, 즐길거리, 추억거리 가득한 특별한 여행을 선사한다.

▲익스트림을 즐겨라!

옥마산에 위치한 '레일바이크'는 과거 석탄을 실어 나르던 철도에서 현재는 추억과 낭만을 안겨주고 있다. 왕복 5km 구간에서 페달을 밟으며 아름다운 풍경과 꽃향기를 만끽 할 수 있다. 성인 2인 기준 2만 원이나, 주중에는 20%, 주말에는 10% 할인받을 수 있다.

타워높이 52m, 로프 길이 613m, 국내 최초 4명이 동시에 이용 가능한 레포츠인 '대천 짚트랙'은 와이어에 몸을 맡기고 활강하는 스릴과 짜릿함은 강력한 인상을 심어준다. 1인 기준 1만8000원에서 3000원 할인된 1만5000원에 즐길 수 있다.

관광 컨버전스 시대를 맞아 보령시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스카이바이크'는 지난해 6월 중순 개장한 이후 9개월여 간 8만여 명이 이용하고, 6억 원의 수입을 올리는 등 관광객 유치 효자 아이템으로 우뚝 서고 있다. 국내 유일 바다 위를 달리며 대천해수욕장의 관광 포인트인 백사장과 바다 절경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자연과 벗 삼아 봄의 정취를 느끼다

자연과 벗 삼아 봄의 정취를 느끼기에 캠핑 · 야영만한 것도 없다. 대천해수욕장, 오서산과 성주산 자연휴양림 등 공공시설은 물론이고, 청소 스칸디나캠프팜, 무창포 카라반 파크, 주교 상양관광농원, 웅천솔원야영장, 성주 자연숲캠핑장에서는 색다른 야영과 캠핑을 즐길 수 있어 가족, 친구, 연인과의 소중한 추억을 만들기에 안성맞춤이다.

천북 신현쌈지돈 마을에서는 영농 및 생태체험, 민속놀이, 동물 힐링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고, 청라 은행마을 녹색농촌 체험마을에서는 폐교를 리모델링한 황토방과 객실, 20면의 야영장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주도로 재탄생한 녹색농촌체험마을에서는 농촌체험도 할 수 있다. 기간 중 20%의 체험료 할인은 덤이다.

섬 전체를 하나의 정원으로 아우르면서 천혜의 자연미를 그대로 머금고 있는 '상화원'은 섬 전체를 둘러싼 1km 구간의 지붕형 회랑과 해변연못, 정원 등을 만나면서 시원하게 펼쳐있는 멋진 보령바다를 조망할 수 있다. 봄 여행주간에는 평일에도 개방하며, 오전 11시부터 오후5시까지 관람 할 수 있다. 관람료는 6000원이다.

오석 조각과 허브 정원인 개화예술공원은 약 18ha 규모로 모산조형미술관과 대규모의 조각공원, 화인음악당, 허브랜드로 이뤄졌다. 아름다운 예술작품과 함께 식물과 꽃, 동물 등 아이들과 함께 하기에는 최고의 장소이다. 입장료는 20% 할인한 4000원이다.

▲역사와 문화의 발자취를 느끼다.

성주사의 절터를 포함한 국보 1개와 보물 3개 등 다양한 문화유적의 총람인 성주사지에서는 역사의 숨결을 느끼며 낭만의 봄을 만끽하는 색다른 여행이 될 것이다. 인근에는 석탄산업의 역사와 작업환경, 현장 재현을 통한 후손들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중인 국내 최초의 보령 석탄박물관도 있다.

조선 시대 서해안 바다 방어의 요충지 역할을 했던 곳인 충청 수영성은 경관이 수려해 선조들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아온 곳으로 알려져 있다. 눈이 시리도록 푸른 하늘과 접해 있고 천수만 낙조의 황홀한 풍광을 만끽할 수 있는 해양경관 전망대도 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오천항이 위치하고 있어 저렴한 가격으로 보령의 해산물도 맛볼 수 있는 1석 2조의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이밖에도 대천한화리조트의 '박물관은 살아있다 트릭아트', 지역의 가볼만 한 곳 15개소를 선정해 투어지 방문 관광객들에게 보령관광의 새로운 모습을 눈과 가슴, 사진에 담아 갈 수 있는 차별화된 관광체험으로 쏠쏠한 재미와 흥미를 유발시키는 보령 스티커 투어도 즐길 수 있고, 대천 · 무창포 · 오천 · 천북항에서는 바다의 향을 그윽하게 맛 볼 수 있는 제철 해산물 요리와 함께 식도락 여행을 떠나기 안성맞춤이다.

보령=김태선기자

공주 올해의 클린지킴이 선정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어려운 여건에서 열심히 일하는 환경미화원들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제고를 위해 환경미화원 중 '올해의 클린지킴이'를 선정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선정은 그동안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주야를 막론하고 최일선에서 묵묵히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마련됐다.

환경미화원들은 맡은 바 환경미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함은 물론 오후 3시 이후 청소사각지대 환경정화 및 쓰레기 수거처리 활동 등 쓰레기 없는 쾌적한 공주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환경미화원 상조회에서는 매년 불우이웃돕기 및 장학금을 기탁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시는 친절, 성실, 공정한 자세로 업무에 충실하고 특수시책 등을 통해 시정업무에 공헌하는 등 우수한 환경미화원을 3명 이내로 선정, 오는 12월 중 시상할 계획이다.

진기연 환경자원과장은 "열심히 일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환경미화원을 발굴해 표창하는 제도"라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더욱 성실히 근무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주=정상범기자

우/리/동/네

서산시, 시민 불편 해소 · 체납액 실시간 확인

체납정보 원클릭 시스템 도입

서산시가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체납액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징수할 수 있는 체납정보 원클릭 시스템을 도입했다.

체납정보 원클릭 시스템이란 개별 부서에서 관리하는 지방세 및 세외 수입 현황을 한눈에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의 도입으로 111,299건, 203억여원의 방대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또 시민들의 각종 보조금과 공사대금 신청 시 각 부서를 일일이 방문해 납세 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던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각종 예산 지출 시 금액의 과소를 불문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 누수 없는 체납액 징수에도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성철 세무과장은 "전 부서에서 체납액을 실시간으로 징수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민원 편익 도모는 물론 건실한 지방재정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편의 행정을 적극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산=김정한기자

고객만족 넘어 고객감동으로

공주 컨텍센터, 민원인 불편 · 비효율적 업무 개선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함께하는 행복공주 실현으로 시민행복 증진을 위해 운영중인 컨텍센터의 수준 높은 민원상담 서비스로 시민 만족도를 높여가고 있다.

지난 2012년 개소한 컨텍센터는 전화상담 시 전화돌림, 반복질문 등 민원인의 불편과 비효율적인 업무 개선을 위해 설치됐으며, 현재 7명의 전문 상담원들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 평균 800여건의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컨텍센터는 5년 동안 축적된 상담노하우로 행정정보 확인이 필요한 일부 허가 업무나 세정, 복지 업무를 제외하고는 한번 전화로 민원이 해결되는 1차 상담 완료율이 92%에 달하는 등 높은 성과를 내고 있어 시민들이 매우 만족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약자인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운영중인 안심콜 서비스도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안심콜 서비스는 어르신들과 경로당을 대상으로 전문상담원과 자원봉사자가 주기적으로 전화를 걸어 안부와 건강 점검, 말벗해드리기 등을 해주는 서비스로, 계절별 운동방법, 질환에 따른 식이요법 등 개인별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상담 중 어르신들의 신변에 위험이 인지되면 시청 복지지원과와 연계해 신속하게 위기상황에 대처하고 있다.

주진영 시민봉사과장은 "고객 우선의 차별화된 고품격 상담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행복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주=정상범 기자

TV 오늘의 하이라이트

▲ 훈장 오순남 (MBC 오전 7시50분)

선주(김혜선)는 지호(임호)가 자살했다는 소식에 절망하고, 만평(장광)은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는 어린 순남(박시은)을 서당에 데려와 키우며 그녀와 인연을 맺게 되는데...

▲ 아임쏘리 강남구 (SBS 오전 8시20분)

재민이를 뺏기자 영화는 도훈에게 이혼을 선언하고, 모아는 사망자에서 신원을 회복한다. 한편 남구는 모아와 재민이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자신의 마음은 변함이 없음을 전한다. 친권변경이 될까 노심초사하던 영화는 결국 재민이를 몰래 데려가는데...

▲ 그 여자의 바다 (KBS2 오전 9시)

선일봉제공장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하자 수인과 여공들은 좌절한다. 반면 세영과 정욱은 한 집에 살게 된 이후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 금례는 손자 선우의 역경에 대해 보고 받지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고, 오히려 보다 못한 수인이 나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자고 선우를 설득하는데...

케이블 명화

▲ 인투터 스톰 (OCN 오후 7시10분)

리처드 아미티지의 영화

토네이도가 두려운 사람들과 토네이도를 따라다니는 사람들 이야기. 예측 불가한 토네이도의 출현은 초강력 회오리바람으로 지상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다시 내팽개친다.

머무는 시간은 길지 않으나 무서운 속도와 파괴력은 여전히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한다.

"맙소사, 저거 보여?!"

모든 것을 집어삼킨다!

갑작스런 기상 이변으로 발생한 수퍼 토네이도가 오클라호마의 실버톤을 덮쳐 쑥대밭으로 만든다. 사람들은 최대풍속 초속 300m의 여객기마저 날려버리는 비바람과 하늘로 솟아오른 불기둥, 토네이도가 진공청소기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사상 최대 재난을 겪는다.

한편, 고등학교 교감인 게리(리처드 아미티지)는 졸업식장에서 사라진 아들을 찾기 위해 나서고, 전설의 토네이도를 직접 눈 앞에서 촬영하기 위해 기상학자와 스톰 체이서가 몰려드는데…

▲스파이 (채널CGV 오후 10시30분)

대한민국 최고의 스파이 김철수(설경구). 하지만 마누라 영희(문소리) 앞에만 서면 쩔쩔 매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남편이기도 하다. 아무도 모르게 나랏일을 하는 탓에, 출장을 밥 먹듯이 하는 철수. 하필이면 2세를 만들기 위해 받아 놓은 D-day에 의문의 테러가 발생해, 진상 파악을 위한 태국 출장 명령을 받게 된다. 위험천만한 작전지를 종횡무진하는 철수. 그런데, 그 곳에서 철수의 레이더망에 들어온 건 다름 아닌 마.누.라! 심지어 그녀는 모든 작전지마다 위험하게 잘생긴 의문의 사나이(다니엘 헤니)와 함께 나타나 철수의 애간장을 태운다.

한편, 남편의 정체를 모르는 스튜어디스 영희는 그런 남편 때문에 폭발 직전! 홧김에 비행 스케줄을 바꿔 태국으로 간다. 그곳에서 우연히 만난 꽃미남 라이언과 달콤한 시간을 보내며 철수의 전화도 받지 않고 핑크빛 환상에 빠지는데…

국가의 운명이 왔다갔다하는 절체절명의 상황! 의문의 남자 앞에서 마냥 좋아라 하는 영희 때문에 도대체 작전에 집중이 안 되는 철수! 과연 철수는 나라도 지키고, 마누라도 지킬 수 있을까?

케이블 & 위성방송

▶YTN (02)398-8000 ▶스카이라이프 1588-3200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060-398-3355

영화 · 오락

◆ OCN
9:10 브릭맨션: 통제불능 범죄구역
11:00 데스레이스
13:00 애타는 로맨스
14:10 7번째 아들
16:20 터널
19:10 인투더 스톰
21:00 애타는 로맨스
22:00 성범죄수사대:SVU 시즌18

◆ 채널 CGV
4:50 식스 블릿츠
6:50 허비 첫 시동을 걸다
8:50 위대한 소원
10:50 미쓰 와이프
13:20 트랜스포터2
15:10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
17:50 패스트&퓨리어스: 도쿄 드리프트
20:10 분노의 질주: 더 오리지널
22:30 스파이

◆ Mnet
6:40 SIXTEEN
8:00 카운트다운 101
9:10 너의 목소리가 보여 시즌4
10:40 프로듀스101 시즌2
13:00 프로듀스101 시즌2 스페셜
13:30 MPD Music Talk (SNS/메신저)
14:30 신양남자쇼
15:30 너의 목소리가 보여 시즌4
17:00 Daily Music Talk (SMS)
18:00 Dodaeng's Diary in LA
18:30 프로듀스101 시즌2 스페셜
19:00 에IF릴
20:00 너의 목소리가 보여 시즌4
21:30 프로듀스101 시즌2

스포츠 · 레져

◆ MBC스포츠플러스
9:00 2017 메이저리그
12:00 2017 메이저리그
16:00 야구 중심
17:00 2017 메이저리그 선수별 하이라이트
17:30 코리안 메이저리거 투데이
18:00 베이스볼 NOW
18:30 2017 타이어뱅크KBO 리그
22:00 베이스볼 투나잇

◆ SBS 스포츠
8:30 주간야구
11:00 손흥민 현지중계
12:00 제2회 키움증권배 고교동창3쿠션 최강전
13:30 손흥민 골경기 모음
14:10 2016 LG U+컵 3쿠션 마스터스
16:10 주간야구
17:30 2017 베이스볼S 다이제스트
18:20 2017 KBO 리그
22:00 2017 베이스볼S

◆ 온스타일
6:40 혼술남녀
9:00 립스틱 프린스
10:10 겟잇뷰티 2017
11:20 립스틱 프린스2
12:30 겟잇뷰티 셀프
12:50 로맨스가 더 필요해
14:00 SNL 코리아 9
15:20 혼술남녀
17:40 겟잇뷰티 셀프
18:00 겟잇뷰티 2017
19:00 꽃보다 할배-스페인편
20:20 겟잇뷰티 셀프
20:40 원나잇 푸드트립 스페셜
21:40 매력티비
22:10 다이아의 욜로트립

뉴스 · 다큐

◆ YTN
8:00 이슈 오늘
10:00 뉴스타워
12:00 뉴스n이슈
14:00 호준석의 뉴스 인
16:00 뉴스Q
18:00 뉴스 통
19:30 신율의 시사탕탕
21:00 뉴스21
22:00 김선영의 뉴스나이트

◆ 한국경제TV
7:00 굿모닝 투자의 아침
8:30 출발! 증시 830
10:00 증시 라인10
12:00 재테크, 알아야 번다
13:00 증시라인 13
15:40 부자 국민 만들기 연금술사
16:30 한국경제 이슈 N
17:00 성공예감 부동산 재테크
18:00 생방송 부동산 현장
19:00 보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0:00 장외주식 사구팔구
21:30 대부천국

◆ 내셔널지오그래픽채널
10:00 건강한 아침, 메디컬365
11:00 <세계 테마 기행> 다채로움의 향연, 중국 구이저우- 1부, 2부
12:30 아시아 헌터
13:30 순간포착! 위험한 동물들 (1)
14:00 <미국의 위대한 자연 유산>5부 - 동화 속 풍경, 그레이트 스모키산맥
15:00 <와일드 아메리카> 1부 - 생명으로 가득한 내륙의 바다
16:00 <세계 테마 기행> 다채로움의 향연, 중국 구이저우- 1부, 2부
17:30 아시아 헌터
18:30 <정글 시티> 옥상 위의 비단뱀

음악 · 애니

◆ MBC 뮤직
7:30 Good Morning MBC MUSIC
9:00 주간아이돌
10:00 순위의 재구성
11:20 NCT LIFE
12:20 발칙한 동거 빈방 있음
13:50 세븐틴 어느 멋진 날 in JAPAN
14:50 우리 결혼했어요 시즌4
16:20 나 혼자 산다
18:00 쇼 챔피언 비하인드

◆ 애니맥스
6:00 바이클론즈 5
7:00 치링치링 시크릿 쥬쥬
8:00 파파독
9:00 엉뚱발랄 콩순이와 친구들3
10:00 퍼피구조대
11:00 유후와 친구들3
12:10 터닝메카드 W 시즌2
13:00 명탐정코난 시즌3
14:00 정글에서 살아남기- 마루의 어드벤처
15:00 소피루비
16:00 가면라이더 고스트

◆ JEI 재능방송
6:00 고고다이노
7:00 헬로카봇 4
8:00 베이블레이드 버스트
9:00 파워캐치 윈다
10:00 뽀롱뽀롱 뽀로로5
11:00 트리푸톰
12:00 치링치링 시크릿 쥬쥬 11기
13:00 다니엘 타이거
14:00 유희왕ARC-V
15:00 플레이징 틴스5 part2
15:30 퍼피구조대 시즌2
16:00 베이블레이드 버스트
17:00 헬로카봇 5
18:00 터닝메카드 W 시즌2

TV 프로그램

※문의 ▶ KBS 470-7320 ▶MBC 220-2348~9 ▶TJB 281-1101 ▶SBS (02)369-1090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TJB/SBS	CMB	EBS
6:00 KBS 뉴스광장 7:50 인간극장 8:25 아침마당 9:30 KBS 뉴스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00 생로병사의 비밀 11:55 김성룡 고맙습니다 12:00 KBS 뉴스12 1:00 제19대 대선 후보자 경력방송 1:05 KBS네트워크특선 뮤직토크쇼 가요1번지 1:55 TV쇼 진품명품 2:50 코리언지오그래픽플러스 3:10 특집 다큐 동해 4:00 4시 뉴스집중 5:00 KBS 뉴스 5 5:30 동물의 세계 6:00 6시 내고향 6:55 시청자칼럼우리사는 세상 7:00 KBS 뉴스7 7:35 이웃집 찰스 8:05 제19대 대선 방송연설 8:25 빛나라 은수 9:00 KBS 뉴스 9 10:00 시사기획 창 10:55 숨터 11:00 KBS 뉴스라인 11:40 최태성, 이윤석의 역사기행 그곳	6:10 걸어서 세계속으로 7: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8:00 KBS 아침뉴스 타임 9:00 TV소설 그 여자의 바다 9:40 여유만만 10:40 지구촌 뉴스 11:00 하숙집 딸들 12:20 생생정보 스페셜 1:00 1대 100 2:00 KBS 뉴스타임 2:10 세상에 모든 다큐 3:00 자동공부책상 위키2 3:30 TV유치원 4:00 여유만만 5:00 제보자들 6:00 KBS 경제타임 6:20 2TV 저녁생생정보 7:50 다시, 첫사랑 8:30 글로벌 24 8:55 1대100 10:00 완벽한 아내 11:10 하숙집 딸들	6:00 MBC 뉴스투데이 7:50 훈장 오순남 8:30 생방송 오늘 아침 9:30 MBC 생활뉴스 9:45 기분 좋은 날 11:00 2017 메이저리그 류현진 선발경기, LA다저스 :샌 프라시스코 2:25 똑?똑! 키즈 스쿨 2:55 응까 소나타2 3:25 황금주머니 4:00 뉴스 M 5:00 MBC 이브닝 뉴스 6:10 생방송 오늘 저녁 7:15 행복을 주는 사람 7:55 MBC 뉴스데스크 8:55 황금주머니 9:30 리얼스토리 눈 10:00 역적: 백성을 훔친 도적 11:10 PD수첩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6:00 모닝와이드 7:30 모닝와이드 8:30 아임 쏘리 강남구 9:10 좋은 아침 10:10 SBS 뉴스 10:25 SBS 생활경제 11:00 꾸러기 탐구생활 11: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00 SBS 12뉴스 12:50 불타는 청춘 2:00 2시, 뉴스브리핑 4:00 영재발굴단 5:00 SBS 오뉴스 6:05 생방송 투데이 7:20 사랑은 방울방울 8:00 SBS 8뉴스 8:45 제19대 대선방송연설 국민의당 연설원 9:05 본격연예 한밤 10:00 귓속말 11:10 불타는 청춘	6:00 충청남도 영상소식 6:25 대한늬우스 6:30 은혜로운 말씀 7:30 시청자 뉴스 8:00 뉴스와이드 8:50 김경란 교수의 부모교육 9:00 김영진의 집대성 10:00 주정민의 스페셜토크 10:30 건강 플러스 11:00 다이어트 미 12:00 굿뉴스 1:00 시청자뉴스 1:20 김경란 교수의 부모교육 1:30 CMB집중토론 3:00 굿뉴스 3:50 김경란 교수의 부모교육 4:00 행복비나리 5:00 김영진의 집대성 6:00 CMB뉴스와이드 7:00 시청자뉴스 7:20 김경란교수의 부모교육 7:30 잘먹Go 잘 살Go 8:00 기부심 9:00 뉴스와이드 10:00 풋볼클리닉 10:30 메디컬인 11:00 산이좋아 물이좋아 11:30 빅데이터 세상을 말한다	6:00 한국기행 6:20 세계테마기행 7:00 레이디 버그 7:30 로보카 폴리 7:45 꼬마버스 타요 8:00 딩동댕 유치원 8:30 엄마 카투리 8:45 부릉부릉! 브루미즈 9:00 방귀대장 뿡뿡이 9:30 이얍! 스페이스 정글 9:40 부모-위대한 엄마 10:30 한국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 테마기행 12:00 EBS 정오 뉴스 12:10 미스터리 휴먼다큐 12:40 지식채널 e 13:35 뷰티풀 코리아 13:40 즐거운 수학 EBS MATH 14:20 정글에서 살아남기- 마루의 어드벤처 14:55 모피와 친구들 15:05 피터래빗 15:20 우주탐험가 젯 15:35 요술상자 16:15 방귀대장 뿡뿡이 16:45 딩동댕 유치원1 17:05 딩동댕 유치원2 17:15 엄마 까투리 17:30 로보카 폴리 18:00 생방송 톡!톡!보니 하니1 18:05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쥬 18:20 생방송 톡!톡!보니 하니2 18:25 호기심 나라 오키도 18:40 생방송 톡! 톡!보니 하니3 18:45 신통방통 공룡슈퍼 18:55 생방송 톡!톡!보니 하니4 19:00 소피 루비 19:30 EBS 뉴스 19:50 극한 직업 20:40 다큐 오늘

송악두레논매기보존회, 저잣거리 특설무대 공연

5월 13일 2시 송악면 외암리 민속마을

충남아산 송악풍물두레논매기보존회(회장 박용선)는 '송악두레논매기보존행사'를 오는 5월 13일 오후 2시, 아산시 송악면 외암민속마을 저잣거리 특설무대에서 선보인다.

올해로 14회를 맞는 이번 행사는 농신제, 모심기 재현, 물꼬쌈 재현, 두레풍물 두레논매기, 지게가마두레쌈과 축하 공연등 다양한 볼거리로 마련된다. 장구 난타, 판소리와 시조창등 개막 공연이 준비됐고, 화합 어울림 마당은 유명 가수들이 축하 무대에 오른다.

박용선 송악풍물두레논매기보존회장은 "거칠고 투박한 전통두레풍물과 세련되지 않은 막걸리두레춤사위에 한시름 쉬어가며 선조들의 진리를 배울 수 있다."며 "풍요롭고 윤택한 농경민속문화의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송악풍물두레논매기'는 농경 사회 속에서 세련되지 않은 굵직하고 투박한 굿거리장단과 퉁퉁이장단, 보릿대춤사위가 어우러져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지게가마두레싸움놀이와 결합된 자랑스런 아산의 향토문화유산이며, 전국대회에서도 수차례 수상한 경력을 갖고 있다.

아산=리량주기자

제18회 충청남도지사기 합기도 대회 '성료'

충남 합기도 동호인 1000여명 참가… 성황리에 끝나

충남합기도협회(회장 김영덕)와 청양군합기도협회(회장 이충희)가 주관한 제18회 충청남도지사기 합기도대회가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청양군민체육관에서 충남 합기도동호인 1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끝났다.

이번 대회는 단체전 연무경기와 개인전 대련경기 · 호신형경기 · 호신술경기 · 기록경기로 진행됐다.

단체 연무경기 결과 ▲우승 아산시합기도협회(서인합기도검무관) ▲2위 부여군합기도협회(특사체육관) ▲3위 홍성군합기도협회 ▲장려상 보령시합기도협회가 차지했다. 또 최우수 심판상은 정재광씨, 최우수 선수상은 송예찬씨, 최우수 지도상은 구병희씨가 수상했다.

청양=정상범기자

산림복지진흥원, 산림치유원서 특별 청렴교육 실시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윤영균)은 지난 21일 경북 영주시 봉현면 국립산림치유원 대회의실에서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반부패 · 청렴 및 청탁금지법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청렴특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구체적 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특강에는 김판석 사무처장이 특별강사로 나서 '청탁금지법의 이해와 부정부패 사례'를 주제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청탁의 사례 등을 설명했다.

특강을 통해 직원들은 금품 수수 및 부정청탁과 같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신뢰받는 공직자의 자세가 무엇인지에 대해 공유했다.

송병배기자

'석조저택 살인사건'

메인 예고편 최초 공개

2017년 극장가를 압도할 서스펜스 스릴러 영화 <석조저택 살인사건>이 숨막히는 긴장감을 선사하는 메인 예고편을 최초 공개하며 관객들의 기대감을 증폭시키고 있다.[감독: 정식, 김휘 | 출연: 고수, 김주혁, 문성근, 박성웅 | 제공/배급: 씨네그루㈜키다리이엔티 | 제작: ㈜영화사 다 | 개봉: 5월 9일]

완벽한 서스펜스와 끝없는 미스터리를 예고한 영화 <석조저택 살인사건>이 메인 예고편을 최초 공개한다. <석조저택 살인사건>은 해방 후 경성, 유일한 증거는 잘려나간 손가락뿐인 의문의 살인사건에 경성 최고의 재력가와 과거를 모두 지운 정체불명의 운전수가 얽히며 벌어지는 서스펜스 스릴러.

이번에 공개된 메인 예고편은 의문의 살인 사건을 목격한 '최승만'(고수 분)의 모습으로 시작, 보는 이들의 시선을 집중시킨다. 살인 사건을 목격한 '최승만'이 용의자로 의심되는 '남도진'(김주혁 분)을 발견, "오늘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다"는 대사를 통해 그의 심적 변화를 느끼게 해 앞으로 펼쳐질 스토리 전개에 대한 호기심을 고조시킨다.

여기에 빠른 템포와 음악이 절정에 치닫는 순간 '누구의 속임수인가! 모두가 속고 있다'라는 카피가 등장, 예비 관객들의 기대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한편, 사체 없는 살인이라는 의문의 살인사건을 두고 벌어지는 서스펜스 스릴러 영화 <석조저택 살인사건>은 오는 5월 9일 개봉 예정이다.

NAVER
'대전투데이'를 검색하세요

대표이사 김 성 찬 M 010-3401-8771 경성산업 경성산업(주) 343-844 충남 당진시 고대면 옥현리 산 223 TEL : 041) 357-6738 FAX : 041) 357-6739 ■공재품목: 부순모래, 각종쇄석골재, 혼합석, 필터석, 사석, 석분

레저용품 전문점 MSL 명성레포츠 스키·스노보드·사이클·MTB·수상스키 웨이크보드·모터보트 전문점·골프용품 專務理事 최 재 종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1478-6 TEL : (042)489-3030 · 486-7676 FAX : (042)472-5885 H·P : 011-408-6600 Website : www.msleports.co.kr

한밭대 외국인 언어연수생 한국문화체험행사 개최 한밭대학교(총장 송하영)는 지난 22일 경기도 용인시 에버랜드에서 '한국어 언어연수생 한국문화체험 행사' 를 개최했다. 한국생활에 대한 외국인 학생들의 이해와 적응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아산시 안전총괄담당관실, 주말 농촌일손돕기 실시 지난 22일, 봄철 농번기에 부족한 일손을 돕기 위해 인주면 공세1리 농가를 찾았다. 이번 농촌일손 돕기는 부서원 전 직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주말에 진행되어 두 팀으로 나눠 일손이 부족한 농가의 벼 못자리 작업을 실시했다.

코리아나화장품 임직원, 1사1촌 자연사랑 환경정화활동 코리아나화장품(대표이사 유학수) 임직원들은 지난 22일 청양군 대치면 상갑리 가파마을을 찾아 자연사랑 환경정화활동을 벌였다.

홍성고등학교 장준, 제9회 아시아 청소년 태권도 대회 우승 지난 20일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제9회 아시아 청소년 태권도 대회에서 홍성고등학교(교장 정호영) 2학년 장준 학생이(지도교사 전기수, 지도코치 송명섭) 남자 55kg급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공주시 계룡면 재능기부단, 소외계층 집수리 봉사활동 공주시 계룡면(면장 유영근)은 지난 22일 조손가정 등 소외계층 두 가정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배와 장판을 교체하는 집수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충남동부보훈지청-병천고와 '청소년 보훈봉사'업무협약 체결 충남동부보훈지청(지청장 채순희)과 천안병천고등학교(교장 진영순)는 24일 오전 11시 병천고 교장실에서 「청소년 보훈봉사 MOU」를 체결했다. 「청소년 보훈봉사」는 청소년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해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는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이다.

아산시 삼성전자 온양캠퍼스 사회공헌센터

'아동 안전' 위해 지하도에 벽화 그려

아산시 삼성전자 온양캠퍼스 사회공헌센터(센터장 김선식)가 지난 22, 23일 양일간에 걸쳐 신창면 읍내리 아동들이 많이 다니는 지하도에 벽화를 그렸다.

이번에 그린 벽화는 금년 4월부터 시작하게 된 삼성전자 온양캠퍼스에서 후원하고 신창면, 다문화센터, 아산서부종합사회복지관, 아산경찰서, 아산시교육지원청 등 여러 기관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인 '신창면 맞춤형 다문화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됐다.

또한,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읍내리 우범지역에 아동들의 안전을 위한 로고젝트 설치, 아동들이 많이 다니는 어둠침침한 지하도에 밝은 환경조성을 위해 삼성전자 온양캠퍼스의 여러 직원들이 합심해 벽화를 그리게 됐다.

삼성전자 온양캠퍼스 사회공헌센터 김선식 센터장은 "신창면 맞춤형 다문화프로젝트사업을 지역의 유관기관들과 함께 추진하면서 지역사회의 safe kid zone을 개선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어둠침침한 지하도가 예쁜 벽화로 인해 환하게 바뀌어 아이들이 이 그림을 보고 걸어 다니면서 새로운 꿈을 꾸고 희망을 가졌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고 말했다.

김정식 신창면장은 "삼성전자 온양캠퍼스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신창면의 어두운 지하도가 벽화 하나로 밝고 예쁘게 변화를 주고 로고젝트로 어두운 밤길이 환하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충남대 유원선 교수, 정보통신의 날 대통령 표창

충남대 선박해양공학과 유원선<사진> 교수가 지난 4월 21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과학기술과 ICT 혁신 4차 산업혁명 지능정보사회 선도' 를 주제로 열린 과학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유원선 교수는 대형 선박건조에 사용되는 블록 트랜스포터 운영시스템을 개발해 물류이동 비용 및 적치장 임대비 절감 등 ICT와 조선해양산업간 융합 및 생산기술고도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이정복기자

새롭게 선보이는 국립 공주박물관 웅진백제실

공주박물관(관장 김규동)이 웅진백제기(475~538)를 중심으로 한성백제 후기부터 사비백제 초기까지 문화를 살펴 볼 수 있는 웅진백제실을 새롭게 단장하고 4월 25일부터 관람객을 맞이한다.

전시공간은 기존의 복잡한 관람동선을 단순화 하고, 벽부형 진열장 대신 독립형 진열장을 적극 활용하여 각각의 전시품이 돋보일 수 있게 했다.

전시는 1부 '한성에서 웅진으로', 2부 '웅진백제의 문화', 3부 '무령왕의 생애와 업적', 4부 '웅진에서 사비로' 등 총 4부로 구성했다.

이번 전시개편에서는 수년간에 걸쳐 보존처리한 무령왕과 왕비의 목관을 비롯해 왕비의 베개와 발받침, 금동신발 등을 새롭게 전시했다.

공주=정상범기자

정신건강증진 캠페인으로 건강 챙긴다

공주대, 대학생의 정신건강 위험요소와 문제 해결 위해 가져

공주대학교(총장 직무대리 김희수) 보건진료소는 24일 대학생의 우울, 알코올 중독 등 정신건강 위험요소와 문제 해결을 위한 정신건강증진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은 정신질환에 대한 올바른 인식 함양 및 편견해소, 심리·사회적인 문제를 보이는 대상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도록 안내했다.

또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정신건강 생활실천 수칙 및 정보 제공, 홍보 자료 배부 등을 통해 학생은 물론 교직원의 정신건강 증진 향상을 제대로 챙겨 큰 호응을 받았다.

특히, 이날 공주대 보건진료소는 건강생활실천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확산과 자발적인 실천을 도모하고 건강증진 친화 환경을 조성하는 등 공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의 협조로 캠페인 행사를 실시하여 위기 학생에 대하여는 교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을 받도록 안내했다.

공주=정상범기자

상반기 신규 의용소방대원 임명장 수여

태안소방서, 자긍심과 사기 고취시키고자 수여

태안소방서(서장 김오식)가 2층 대회의실에서 임명권을 확립하고 자긍심과 사기를 고취시키고자 상반기 신규 의용소방대원 32명에 대한 임명장 수여 했다.

태안군 의용소방대원은 태안군의 내고장 지역안전지킴이로서 각종 재난현장에서 화재, 구조, 구급 등 소방보조 활동뿐만 아니라 태안의 '세계튤립축제' 등 각종 행사에도 참여하며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신규 임용된 신규 의용소방대원 32명도 소방서 관내 각 지역대별로 소속되며 평소에는 생업에 종사하다 화재나 각종 대형 재난 발생 시 소방공무원들을 도와 지원 업무를 맡게 된다.

태안=김정한기자

'Active Learning 워크숍' 교수법 특강

대전대, 성공적인 플립러닝 위해 개최

대전대학교(총장 이종서) 교수학습개발원(원장 이봉한 교수)에서는 24일 대학 30주년기념관 중회의실에서 교내 교원들을 대상으로 '2017학년도 1학기, 92회 교수역량강화 교수법 특강'을 개최하였다.

교수학습개발원 최정빈 교수가 강사로 나선 이번 교수법 특강에는 '성공적인 플립러닝을 위한 Active Learning 워크숍'이라는 주제로 50여 명의 교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약 4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강의는 플립러닝 토론 교수법과 협동 학습법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토론 교수법의 경우 '아이디어를 얻는 토의토론'과 함께 '발표력과 학습을 위한 토의토론', '쟁점분석을 위한 토의토론' 및 '의사 결정을 위한 토의토론'이라는 4가지 컨셉으로 나뉘어 세부 방법 등에 대한 방법을 제공하였다.

이어 진행된 협동학습법 시간에서는 '완전학습을 위한 협력학습 모형'과 '과제세분화를 위한 협력학습' 및 '문제중심해결 협력학습의 Active Learning제공' 등의 실습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성공적인 플립러닝을 위한 유익한 시간이 마련되기도 하였다.

이정복기자

법사랑위원 대전지역연합회-대덕구지구협의회

'뒷골목 벽화그리기 행사' 진행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안상돈) 및 법사랑위원 대전지역연합회(회장 정길영)는 법사랑위원 대덕구지구협의회(회장 박흥용)와 지난 4월 20일부터 23일까지 대덕구 회덕로 14번길 일대 골목에서 셉테드(CPTED,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의 하나로 뒷골목 벽화그리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대전지역연합회 소속 법사랑위원 뿐만 아니라 한남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와 한국타이어 동그라미봉사단도 참여하여 재능기부활동을 했다.

대덕구 회덕로 14번길 일대는 와동초등학교와 신대주공아파트, 신대노인복지관이 인접해 있어 평소 어린이나 노약자의 왕래가 잦은 곳이나, 어둡고 후미진 골목으로 인하여 보행자들이 범죄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번 뒷골목 벽화그리기 행사를 통하여 무섭기만 했던 골목은 밝고 화사한 명품 골목으로 재탄생하게 됐다.

와동초등학교의 한 학생은 "등하교를 하면서 골목을 지나갈 때 무서운 적이 많았는데, 담벼락에 멋있고 예쁜 그림이 있어 너무 좋다"라고 말했다.

한편, 법사랑위원 대전지역연합회는 범죄예방을 위하여 앞으로도 계속 뒷골목 벽화그리기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태선기자

대전충남병무청, 상반기 학생예비군자원정비

대전충남지방병무청(청장 백운집)은 정확한 예비군 자원관리를 위해 2017년도 상반기 학생예비군 자원정비를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자원정비는 충남대학교, 공주대학교 등 대전·세종·충남 52개 대학과 협조해 학적보유사항과 예비군 편성자료를 대조, 실시했다. 자원정비 대상은 대학교(원)에 재학, 휴학, 졸업생으로 재학 중인 것으로 확인된 예비군에 대해서는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대학(원)에 재학(수업연한초과자 제외) 중인 학생은 대학예비군 부대나 지역예비군부대에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생예비군을 신청하면 동원훈련에서 제외되고 향방 기본훈련 8시간을 받게 된다. 수업연한초과자, 휴학 및 졸업자의 경우 지역예비군에 편성되어 동원지정 상태에 따라 동원훈련 또는 동미참 훈련을 받는다.

송병배기자

기 고

AI와 구제역 차단 획기적 성과 기대한다

손 영 호
반석가금진료연구소장

우리나라 축산업 발전에 있어 가장 크게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AI와 구제역이다.

이 두 질병은 재난성질병으로 분류하여 사전예방과 발생시 조기종식을 위해 정부와 가금업계가 총력을 벌여왔지만, 피해가 줄지 않아 이번 개선대책에 많은 사람들이 큰 관심을 보여 왔다.

구제역은 백신을 접종하여 짧은 시간 내에 피해를 최소화 한 채 종식시켰지만, AI는 사상 최대의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가금생산기반, AI 발생시 초기대응 및 조기종식을 위한 방역시스템과 조직, 보상금 체계, 계열회사 책임방역 부여, 그리고 유사시 대비 백신접종의 타당성 검토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의 보완대책이 잘 마련되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I · 구제역 방역 개선대책 대토론회(3.17), 농해수위 공청회(3.22), 중앙 · 지방정책협의회(3.23), 축산단체 간담회(3.24) 등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4월 13일 AI · 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개선대책은 재난성 질병의 근본적 문제해결을 전제로 하는것이므로 현실적 문제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해결책 모색의 결정체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개선대책이 담고 있는 중요한 의미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질병예방의 최우선 과제는 '평시방역'이다. 질병의 창궐은 평시방역이 잘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평시방역이 잘되어야만 유사시에도 상황에 맞게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

이번 대책에서 평시방역 강화에 포함되는 대책의 골격은 '농가의 의식개선'이다.

이를 위해 사육현장의 주체인 농가에 대한 교육 강화와 질병관리 등급제 시행, 농가의 적극적인 방역노력을 끌어내기 위한 인센티브와 페널티 강화 등이 농가의 적극적 변화를 유도하는 대책들로 포함되어 있으며, 추가로 계열회사의 방역책임 강화와 계열화사업자 등록제 도입 및 방역책임 미준수시 처벌강화 등의 대책도 포함되어 있다.

방역은 농가가 직접 하는 것이지 정부가 해주는 것은 아니다. 차단방역의 주체로서 농가는 질병예방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므로, 이번 대책은 축종별, 농가별 차단방역 의식의 상향평준화를 지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평시방역을 위한 개선대책들이 해당 주체인 농가에게는 상당한 규제로 여겨질 수 있겠으나, 방역은 어떤 모양으로든 상향평준화가 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다소 불편함이 따르더라도 적극적으로 변화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평시방역의 확장된 개념으로 '농장의 감염 매개체 접촉 최소화 대책'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AI 방역 취약지역 재편, 건강한 사육환경 조성, 가금류 유통구조 개선 및 바이러스 전파 매개체 관리 등이 있다.

둘째, 질병의 사전예방 및 조기감식을 위해 야생조류 예찰체계의 개편(지자체에 철새 폐사체 등의 1차 정밀검사 권한 확대부여, H5/H7형 확진 즉시 방역대 설정 및 소독 · 예찰 실시 등), 도축장 검사강화 등이 추가됐다.

도축장 검사는 도입결정에 그간 논란이 많았으나 이번 AI 발생시 도축장에서 AI 바이러스가 확인된 몇몇 케이스를 근거로 대책에 포함되었으며, 도축장을 통한 추가확산을 막아보자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해석된다.

셋째, 지자체의 방역 수행 강화를 위해서는 지자체별로 3년마다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을 보완하고, 살처분 인력과 자재에 대한 동원계획의 사전 수립을 의무화 하여야 하며, AI가 반복해서 발생하는 지자체는 방역 전담조직을 구축 할 것, 그리고 중앙정부의 현장 방역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대책 등이 포함됐다.

넷째, 재난성 질병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는 부분도 확인할 수 있었다. 발생초기에 군 재난구조부대를 투입하여 24시간 내 살처분을 완료, 기준인건비 증액 및 지자체의 방역과 신설을 골자로 하는 방역인력 확보, 철새도래지 인근과 농업진흥구역 내 그리고 가금류 농장 500m 내에는 신규가금 사육업의 허가 및 등록의 제한, 그리고 축사현대화 사업을 위한 한시적 보조 지원(30%) 등이 그것이다.

마지막으로 AI는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인체감염의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인체감염의 위험성이 상존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도 일부 수립이 됐다.

정부가 발표한 이번 개선대책에 대하여 과거의 대책 발표시에도 그러했듯이 축산업계에서는 상당부분 '규제강화'로 받아들이고 있다.

정부의 대책이 모든 농가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세워지는 것은 불가능하며, 다만 보편적으로 타당하고 최적의 방역 및 산업진흥을 실현함을 전제로 마련되는 것이니 만큼, 향후 대책들이 현장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정부와 산업주체의 발전적인 상호협조가 필요하다.

농장의 사육시설과 차단방역시설, 그리고 사육시스템에 대한 계열회사와 농장주의 마인드는 서로 다를 수 있어 이에 대한 조율도 필요해 보인다.

결국 방역의 주체는 농장만이 아닌 계열회사, 정부, 지자체 모두이므로 이들 주체들이 AI와 구제역에 대한 방역체계를 구축하는데 상호협력 하여야 한다.

정부는 질병 없는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이번에 발표한 방역개선대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려면 관련 법규정(축산법, 축산계열화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AI · 구제역 긴급행동지침 등)을 보완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방역주체라 할 수 있는 정부, 지자체, 계열회사, 사육농가 그리고 업계 전체의 통합된 노력으로 재난성질병의 차단이라는 획기적 성과를 기대해 본다.

건강 칼럼

당신의 허리, 뻣뻣하게 굳어가고 있지 않나요?

노 현 민
대전바로세움병원 척추센터 원장

오랫동안 허리 통증이 있고 조금씩 아프기 시작하며 주로 잠을 자고 일어난 아침에 허리가 뻣뻣하면서 통증이 있던 회사원 정모씨(27세). 요즘은 잠을 자다가 허리가 아파서 깨어나는 횟수가 잦다가도 일어나서 활동을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허리의 통증이 감소되거나 사라지게 됐다. 병원을 찾은 정씨의 진단은 '강직성 척추염'이었다.

강직성 척추염이란 말 그대로 강직이란 오랜 기간의 염증 후 관절에 변화가 일어나 관절의 움직임이 둔해지는 것을 의미하고, 척추염이란 척추에 염증이 생기는 병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강직성 척추염을 말 그대로 옮기면 '척추에 염증이 생기고 움직임이 둔해지는 병으로 주로 20-40대 남성에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4년 통계에 따르면 척추가 굳어가는 질병인 '강직성 척추염' 환자가 2010년에 비해 1.5배 증가한 24,137명으로 집계했다. 이는 연평균 증가율이 약 115%로 적지 않은 증가율을 보이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통계는 숫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마련이다.

발병 자체가 증가한다고 보기 보다는 생소했던 질환이 홍보, 교육을 통해 알려지면서 증상을 가진 환자의 내원율이 상승하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관련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관절염'하면 떠오르는 '류마티스 관절염'의 유병률 보다 '강직성 척추염'으로 대표되는 '척추관절염'의 유병율이 더 높게 보고되기도 할 만큼 이제는 '강직성 척추염'에 대해서도 바로 알고 올바른 치료가 필요할 것이다.

외국 연구에 따르면 강직성 척추염의 유병률은 0.1~1.4%로 보고되고 있어, 2014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인 10만명 당 48명이란 숫자로 봤을 때 아직도 자기 자신이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것을 모르는 진단이 되지 않은 환자가 다수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척추관절염은 질환의 원형인 강직성 척추염과 이와 임상적, 유전적 특징을 공유하는 건선 관절염, 반응성 관절염, 염증성 장질환 관련 관절염, 유년기 발병 척추관절염, 미분화 척추관절염 등을 포함하는 만성 염증성 류마티스 질환이다.

임상 증상

강직성 척추염의 등, 허리 통증은 가장 흔한 증상으로 70% 환자에서 나타나게 된다. 강직성 척추염에 의한 등, 허리 통증은 다른 기계적 통증과 구분해 염증성 등, 허리 통증"이라고 부른다. 이는 40세 미만의 발병, 서서히 발병 및 진행, 3개월 이상 지속,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뻣뻣함, 운동이나 활동을 하면 호전이 된다.

천장관절염이 동반되게 되면 엉치, 허벅지 뒤쪽 통증과 뻣뻣함으로 나타난다. 주로 아침에 심하고 운동이나 활동으로 감소되며, 쉬거나 활동하지 않으면 재발한다. 일부 환자는 이러한 증상으로 잠을 설치기도 하고 아침에 깬 후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힘들어한다. 디스크 환자의 방사통처럼 통증이 한 쪽 혹은 양쪽 허벅지, 종아리로 전파되기도 한다.

병의 초기에는 허리 운동의 장애가 없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는 허리를 앞 뒤, 좌우로 움직이는 것이 어려워지게 된다. 병이 더 진행하면 등이 앞으로 구부러지고, 가슴을 좌우로 돌릴 수 없게 되기도 한다.

척추관절염이 척추에만 염증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40%의 환자에서 무릎이나 발목, 손목, 팔꿈치 같은 말초관절에도 관절염을 일으키게 된다. 말초 관절염은 보통 좌우 한쪽에만 생기는 경우가 많다. 척추, 관절 외 증상으로는 20%의 환자에서 눈에 염증, 포도막염을 일으키며 호흡기능장애와 드물게 대동맥염을 동반하기도 한다.

원인

많은 연구에서 강직성 척추염의 원인으로 유전적 요인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가장 주요한 유전적 위험인자는 HLA-B27이다. HLA-B27은 강직성 척추염 환자의 90% 이상에서 존재한다.

진단

척추관절염의 국제학회에서는 척추관절염에 이전의 진단 기준 보다는 보다 민감도와 특이도가 우수한 진단 기준을 제시했다.

척추관절염의 가장 큰 특징은 양쪽 천장관절/척추와 골반을 연결하는 관절의 염증인데, 전형적인 증상과 함께 이런 변화가 관절 X선에서 발견되면 진단은 확실하다. 병이 초기이거나 약할 때, 관절 X선에서 천장관절의 이상이 뚜렷하지 않아 진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럴 때는 MRI를 촬영이 필요한데, 급성 염증성 반응이 MRI 상에서 보인다면 진단적 가치가 있다. 병이 진행되면 척추 뼈들이 위 아래로 서로 붙어서 굳어 버리는데 척추 X선에서는 마치 대나무처럼 보이기도 한다. 혈액검사는 30%의 환자에서 염증의 정도를 반영하는 수치가 증가하며 유전자 검사상에서 HLA-B27 검사가 양성으로 나온다면 강하게 의심해봐야 한다.

치료

척추관절염은 몇 달 약 먹는다고 완치되는 병은 아니며,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약물로 증상을 관리하면서 병의 진행과 합병증을 막는 것이 치료의 목표이다. 조기에 진단해 조기에 치료할수록 병의 진행을 더 잘 막을 수 있다는 것은 모든 병에 통용 되는 말이다.

척추관절염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질병은 아니지만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질병이며, 비교적 젊은 사람에서 허리나 엉치의 통증이나 뻣뻣함을 일으키는 질병이다. 증상이 심해서 사회 활동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내버려 두었을 경우 척추 강직으로 허리와 등, 목을 움직일 수 없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하지만 적절한 약물요법과 운동을 병행하면 대부분 증상을 조절할 수 있으며 사회 활동을 하는데 별 지장이 없는 질병으로, 정확한 진단과 적극적인 치료가 중요하다.

생활 속 주의점

일상생활 속에서 강직성 척추염 환자들은 좋은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항상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척추와 관절이 원하지 않는 자세로 굳는 것을 예방하는데에 도움을 준다. 고정기나 코르셋은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쓰지 않도록 한다. 잠은 딱딱한 바닥 위에서 몸을 곧게 펴고 자는 것이 좋으며, 낮은 베개를 사용하고, 엎드려 자는 것도 도움이 된다.

강직성 척추염은 등뼈와 흉곽을 침범해 폐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는데, 이때 흡연이 이러한 증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금연해야 한다. 특히 수영은 허리, 등을 유연하게 유지하도록 해 주며 동시에 다른 관절에도 도움이 되고, 호흡에도 도움이 되고 그 외에 자전거 타기, 농구, 배구 등도 좋은 운동이다

사 설

복지지출 수준 높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간한 '가계 시리즈(1) : 글로벌 사회복지지출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2014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은 9.7%였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인 21.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다만 우리나라는 그동안 복지지출 비중이 워낙 낮았던 탓에 증가 속도는 빠른 편이다.

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은 1990년 2.7%에서 24년 사이 7.0% 포인트(p) 높아졌다. 같은 기간 OECD 회원국의 평균 상승 폭인 4.1%포인트를 크게 웃도는 셈이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은 OECD 평균보다 보건, 가족, 노동시장에 관한 지출비중이 높지만 노령지출 비중은 작다"며 "우리나라는 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오래되지 않았고 그동안 고령화율이 낮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00년에 도입됐다. 도입 시기가 미국(1974년), 프랑스(1988년), 캐나다(1964년), 독일(1961년), 일본(1950년) 등 주요 선진국보다 훨씬 늦었다. 또 우리나라에 국민연금이 도입된 시기는 1988년이다.

미국(1935년), 프랑스(1905년), 캐나다(1966년), 일본(1940년), 독일(1889년) 보다 길게는 100년 가량 늦은 셈이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복지제도가 성숙하고 양극화, 고령화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복지지출이 확대될 전망이긴 하나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복지지출 확대를 위해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고령화를 비롯한 사회적 여건과 경제력 등을 고려해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공유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복지 수준과 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시급하다.

올 채용전망 먹구름…고용시장 봄바람 언제 부나

최근 수출이 호조세를 이어가고 한국은행 · 국제통화기금 등이 잇따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조정하고 이어가고 한국은행 · 국제통화기금 등이 잇따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조정하고 있지만 고용시장은 아직도 한겨울이다. 경기회복의 온기가 반도체 · 석유화학 등 일부 대기업에만 국한돼 대다수 경기 주체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아직도 차갑기만 하다. 무엇보다 제조업 일자리가 계속 줄면서 고용없는 성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한국은행은 지난 13일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 성장률 전망을 기존 2.5%에서 2.6%로 0.1%포인트 상향조정했다. 하지만 올해 취업자 수는 28만명 내외가 늘어 작년 30만명보다 2만명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실업률도 지난해 3.7%에서 0.1%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감원과 대외 불확실성 증대, 중국의 사드보복 등으로 여전히 우리경제의 앞날이 어둡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직원 100명 이상 기업 25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신규 인력 채용규모는 작년보다 6.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신규채용 계획이 있다는 기업은 53.7%에 그쳐 2011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적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조사에서도 올 상반기 대기업 5곳 중 1곳이 불황과 내부사정을 이유로 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 줄이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대졸 이상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가 분기 기준으로 사상 처음 50만명과 350만명을 넘어서 고학력 실업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을 보더라도 1월부터 이어진 실업자 100만명대가 석달째 지속되고 있다. 지난 19일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봄기운이 느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말했지만 고용시장만은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다.

수출증가와 경기회복의 결과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대기업들이 막대한 이익을 내고도 사내보유금으로 쌓아두고 투자와 고용에 인색한 것도 한 원인이다. 지난해 10대 그룹의 사내유보금은 550조원, 30대 그룹은 870조원에 달한다. 기업들이 사내보유금을 풀어 일자리 창출에 나서도록 정부가 먼저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독려해야 하는 이유다. 정치권도 뒷짐만 지고 있지 말고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힘을 보태야 한다. 나아가 대선주자들도 나랏돈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거나 청년수당 · 중소기업 고용보조금 등 임시방편식 대책만 내놓을 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비전과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오늘의 소사

☎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E-mail : d-mail@hanmail.net
▷이름, 나이,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해 주십시오.

외부 필진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전투데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젊은생각 · 바른신문
2006년 5월 17일 창간

발행 · 편집인 김현정 | 회 장 김성구 | 논설위원 조정호
전화안내 042)538-3030 | 기사제보 042)538-1601 | 팩스번호 042)538-2211
구독배달안내 042)538-1602 | 광고신청안내 042)538-1603 | 구 독 료 월1만3000원 1부 700원
서울지사 :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63-2 ☎ 02)6406-5921 팩스 02)392-5143
인쇄 처 : (주)중부인쇄산업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세종시를 케어하는 세종메디컬센터 세종 투자의 길입니다 !

의사 1인당 국민 547명 감당… 세종, 병의원 태부족

세종시엔 아파도 갈 병원이 없다!

'다치면 대전으로' 병원없는 특별시

29,000여명 거주하는 3-1생활권

6층 산부인과, 산후조리원 500평 분양입점

BRT정류장 근접으로 유동인구 확보

문의 전화 **1855-4557**

BOK 비오케이건설(주)

[전문 의료시설과 전문의료 인력의 부족으로 치료효과에 불만족!]

[의사 한명당 진료해야할 인원이 주변 타지역(청주,대전)의 최대 3배 이상!]